

고려대학교 구성원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 및
고려대학교 학생 대표자 토론회 자료집

고려대학교,
그리고 성폭력

-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



소개

2011년 여름, 고려대학교와 한국 사회는 한 건의 성폭력으로 시끌벅적 했습니다. 의과대학 동기 4명이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 3명의 남학생이 1명의 여학생에게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과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가해 학생들은 고려대학교로부터 출교되었으며 형사 법정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형식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명문대에서, 의과대학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무한정 더 부각시키는 것은 도리어 일상에 산재해 있는 성폭력에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통해 고려대학교를 되돌아보고 실천적인 고민을 하고자 고려대학교 반성폭력 연대회의가 학생들의 자치와 연대로 결성되었습니다. 반성폭력연대회의는 고려대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지형을 알아보고자 고려대학교 구성원에 대한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학생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순서

I. 고려대학교 구성원에 대한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 보고서	5
1. 조사대상자의 인구구성	8
2. 성폭력 허용도	10
3. 성폭력 실태 인지	14
4. 성 인식	15
5. 성폭력 피해 실태	23
6. 학내 생활에 대한 불편감	25
7. 성폭력 관련 교육 실태 및 성폭력 관련 제도 인식	28
II. 2011년 10월 27일 학생 대표자 토론회	33
1. 고려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가?	37
2. 성폭력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40
3.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50
4. 이후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가?	68

I. 고려대학교 구성원에 대한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 보고서

① 각 단과대별 학생
양질의 배움, 무궁무진

표본의 대표성

0. 개요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는 2011년 9월 5일에서 2011년 10월 6일까지 고려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각 단과대별 강의실에 들어가,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를 배포한 후, 강의가 끝난 후 수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수한 설문지는 고려대학교 전체 구성원 17,917명(2011년을 기준으로 한 총 정원 내 재학생¹⁾) 중 13.85%에 해당하는 2,482건(설문지는 강의실 배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재학생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도에서 표본오차범위는 $\pm 1.26\%$ ²⁾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백분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문항에서의 개별 백분율을 반올림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개별 백분율의 전체 합이 전체 백분율(100%)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 비교를 한 도표들에는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2건의 표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항의 성격에 따라 간혹 여성과 남성의 응답을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성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4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 방법과 더불어 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검정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검정 결과 차이가 유의미할 경우 질문 옆에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유의확률이 0.10 이하일 경우 *, 0.05 이하일 경우 **, 0.01 이하일 경우 ***표시를 했습니다. 유의확률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0.10 이하일 경우 차이가 유의미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고, 0.05 이하일 경우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고, 0.01 이하일 경우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인구구성/성폭력 허용도/성폭력 실태 인지/성 인식/성폭력 피해 실태/학내 생활에 대한 불편감/성폭력 관련 교육 실태 및 성폭력 관련 제도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011 고려대학교 대학개별공시

(http://www.academyinfo.go.kr/schoolAction.do?process=schoolDisclose001&schoolCd=53018000&orgcode=1&sry_yy=2011&selectYear=2011&univ_gubun=U&detail_ki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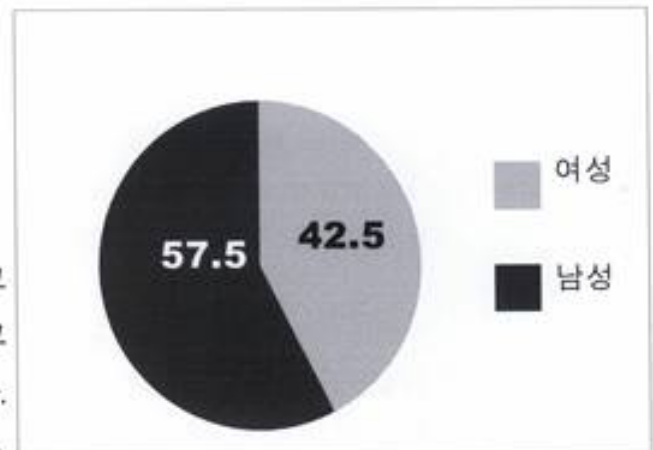
2) $\pm 1.96 \times \sqrt{[P(1-P) \div (n-1)] \times [(N-n) \div N]}$ (P = 모집단/표본집단, n = 표본 수, N = 전체 수)

1. 조사대상자의 인구구성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구성입니다. 설문지 표지에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소속 단과대학, 학번을 물었습니다. 1차적으로 고른 분포를 목적으로 했으며, 경우에 따라 인구구성 별 성 인식/실태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1-1】 성별 분포

	백분율	명
여성	42.5%	1055명
남성	57.5%	1425명
전체	100%	24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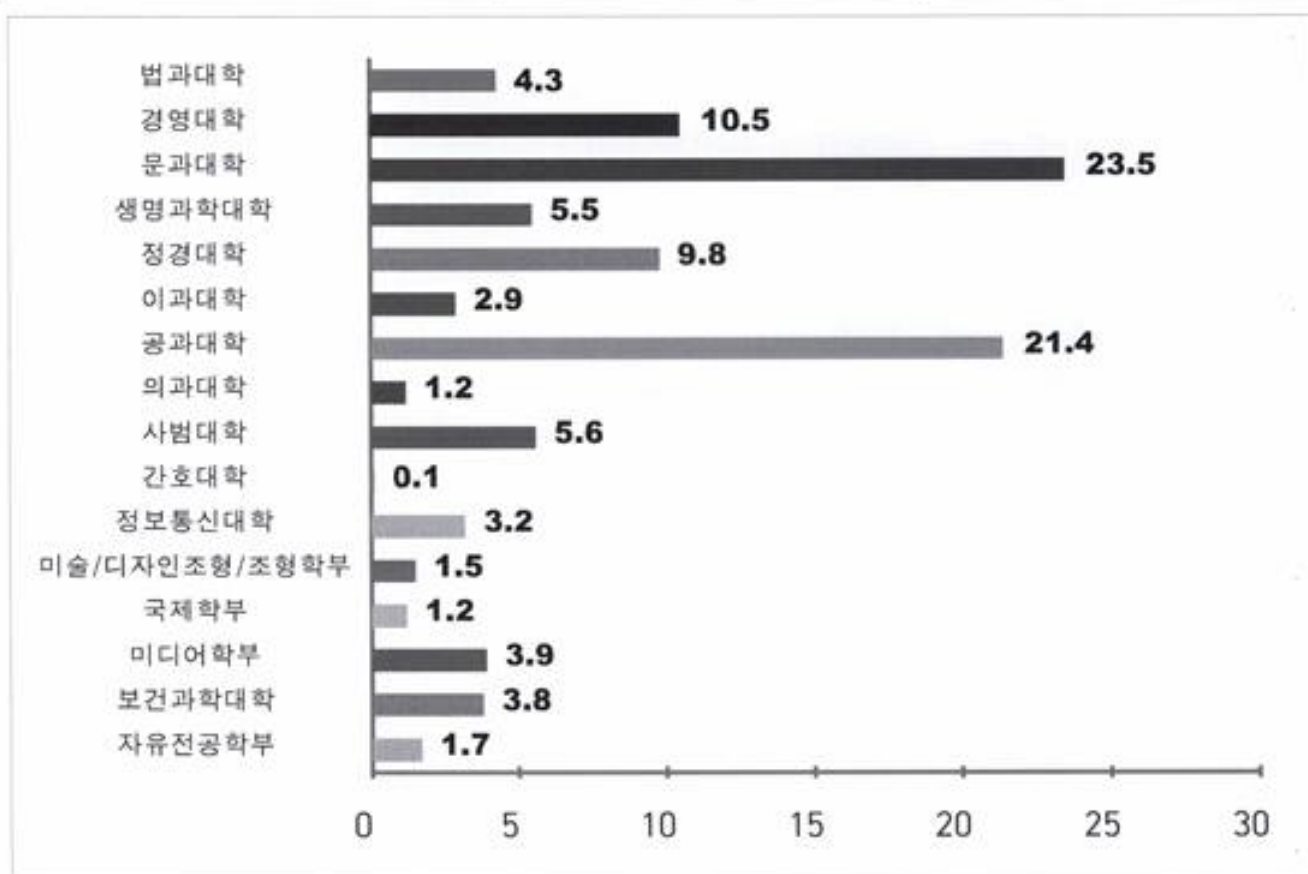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대학개별공시에 따르면 2011년 고려대학교 정원 내 재학생 수는 17,917명이며, 그 중 남학생은 10,723명, 여학생은 7,194명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여성/남성 성비는 여성이 41.15%, 남성이 59.85%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성비는 이와 매우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 소속 단과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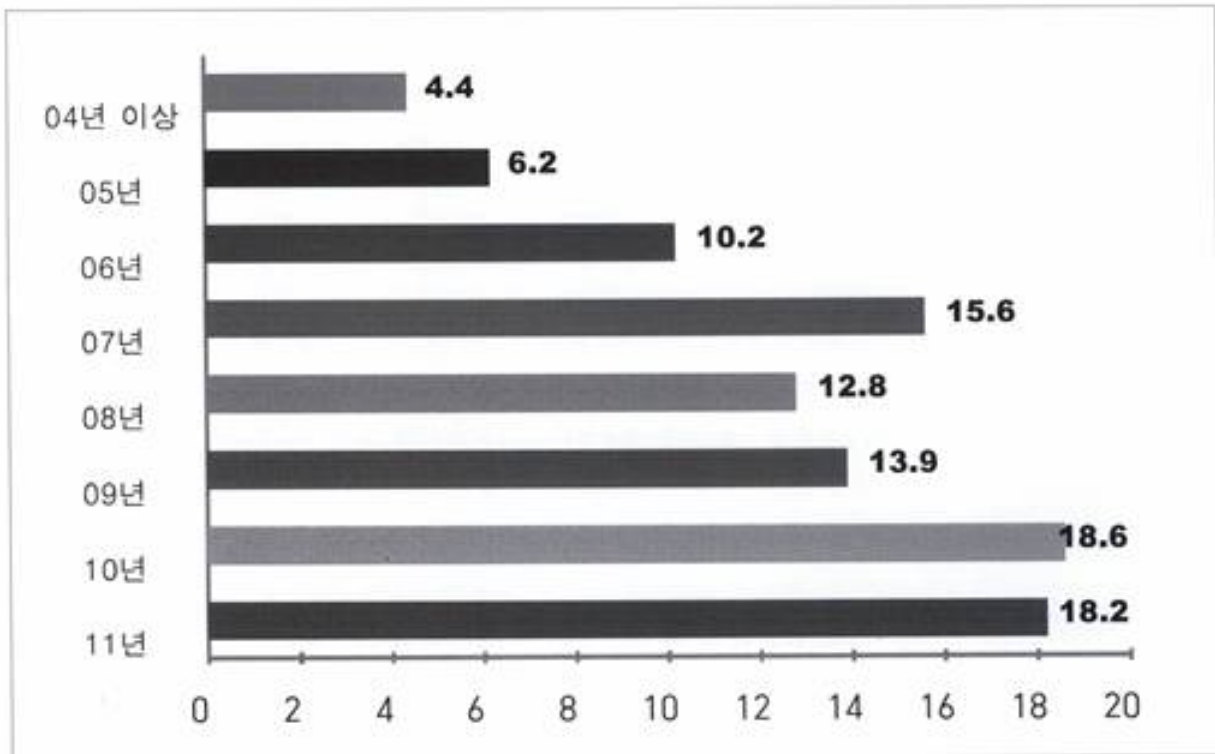
	백분율	명
법과대학	4.3%	107명
경영대학	10.5%	256명
문과대학	23.5%	581명
생명과학대학	5.5%	137명
정경대학	9.8%	242명
이과대학	2.9%	72명
공과대학	21.4%	529명
의과대학	1.2%	29명
사범대학	5.6%	139명
간호대학	0.1%	3명
정보통신대학	3.2%	78명
미술/디자인조형/조형학부	1.5%	39명
국제학부	1.2%	30명

미디어학부	3.9%	97명
보건과학대학	3.8%	93명
자유전공학부	1.7%	41명
전체	100%	2476명



【1-3】 학년 분포

	백분율	명
04년 이상	4.4%	110명
05년	6.2%	153명
06년	10.2%	254명
07년	15.6%	387명
08년	12.8%	317명
09년	13.9%	344명
10년	18.6%	460명
11년	18.2%	452명
전체	100%	2477명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번이나 성별 같은 경우는 강의실에 무작위 배포를 해도 실제 비율과 유사성을 보일 수 있으나 단과대학은 특별히 비율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제 정원 비율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일차적으로 단과대 정원 비율을 고려하며, 1주일 단위로 조사 정원 비율과 실제 정원 비율을 대조해 가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부진했던 간호대학과 생명과학대학,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는 보건과학대학을 제외하고 대체로 **실제 정원 비율과 조사 정원 비율은 일치합니다.**

단과대학 및 학번에 따라 문항 응답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각 단과대학 별 통계자료도 별개로** 공개하는 것이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과대학 별 특이점은 보다 많은 검토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신중하며,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성폭력 허용도 :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성폭력의 범위

고려대학교 구성원이 어떤 행위들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지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총 11가지 행위 유형(강간 또는 강간 미수/원치 않는 신체접촉/연인 사이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연인 사이의 동의하지 않은 키스나 포옹/술을 따르게 하는 것/화장실 내지 탈의실 훑쳐보기/신

체의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기/속옷 절도/음담패설/성적 편견이 담긴 말이나 행동/외모나 몸매 평가)에 대해 질문했고, 그 대답을 여성과 남성 별로 분석해봤습니다.

【2-1】 강간 또는 강간 미수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99.1% (1020명)	0.7% (7명)	0.2% (2명)	100% (1029명)
남성	98.8% (1368명)	0.7% (10명)	0.5% (7명)	100% (1385명)
전체	98.9% (2388명)	0.7% (17명)	0.4% (9명)	100% (2414명)

【2-2】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82.8% (850명)	9.4% (96명)	7.8% (80명)	100% (1026명)
남성	73.3% (1004명)	16.1% (221명)	10.6% (145명)	100% (1370명)
전체	77.4% (1854명)	13.2% (317명)	9.4% (225명)	100% (2396명)

【2-3】 연인 사이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94.0% (969명)	2.0% (21명)	4.0% (41명)	100% (1031명)
남성	90.1% (1240명)	4.5% (62명)	5.4% (75명)	100% (1377명)
전체	91.7% (2209명)	3.4% (83명)	4.8% (116명)	100% (2408명)

【2-4】 연인 사이의 동의하지 않은 키스나 포옹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59.0% (604명)	24.0% (246명)	17.0% (174명)	100% (1024명)
남성	57.7% (790명)	24.3% (333명)	17.9% (245명)	100% (1368명)
전체	58.3% (1394명)	24.2% (579명)	17.5% (419명)	100% (2392명)

【2-5】 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31.0% (313명)	42.0% (424명)	27.0% (273명)	100% (1010명)
남성	26.7% (363명)	50.2% (683명)	23.1% (315명)	100% (1361명)
전체	28.5% (676명)	46.7% (1107명)	24.8% (588명)	100% (2371명)

【2-6】 화장실/탈의실 훔쳐보기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83.3% (851명)	10.5% (107명)	6.2% (63명)	100% (1021명)
남성	85.8% (1172명)	10.1% (138명)	4.1% (56명)	100% (1366명)
전체	84.8% (2023명)	10.3% (245명)	5.0% (119명)	100% (2387명)

【2-7】 신체의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71.8% (729명)	14.9% (151명)	13.4% (136명)	100% (1016명)
남성	55.6% (757명)	24.8% (338명)	19.5% (266명)	100% (1361명)
전체	62.5% (1486명)	20.6% (489명)	16.9% (402명)	100% (2377명)

【2-8】 속옷 절도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65.5% (665명)	20.8% (211명)	13.8% (140명)	100% (1016명)
남성	70.1% (955명)	20.8% (283명)	9.1% (124명)	100% (1362명)
전체	68.1% (1620명)	20.8% (494명)	11.1% (264명)	100% (2378명)

【2-9】 음담패설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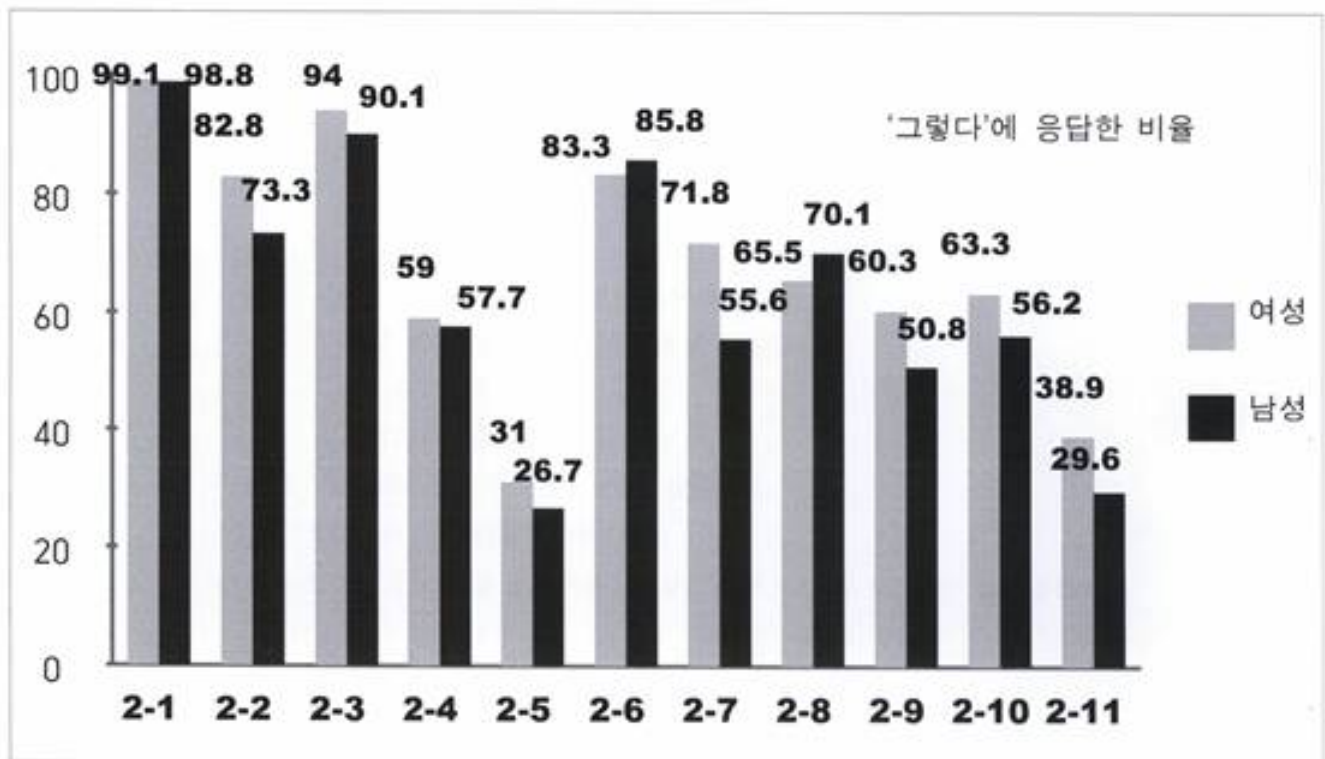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60.3% (610명)	20.9% (211명)	18.8% (190명)	100% (1011명)
남성	50.8% (690명)	29.3% (398명)	19.8% (269명)	100% (1357명)
전체	54.9% (1300명)	25.7% (609명)	19.4% (459명)	100% (2368명)

【2-10】 성적 편견이 담긴 말이나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63.3% (642명)	19.3% (196명)	17.4% (177명)	100% (1015명)
남성	56.2% (763명)	26.0% (353명)	17.8% (241명)	100% (1357명)
전체	59.2% (1405명)	23.1% (549명)	17.6% (418명)	100% (2372명)

【2-11】 외모나 몸매를 평가하는 것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여성	38.9% (393명)	34.3% (347명)	26.8% (271명)	100% (1011명)
남성	29.6% (402명)	43.7% (592명)	26.7% (362명)	100% (1356명)
전체	33.6% (795명)	39.7% (939명)	26.7% (633명)	100% (2367명)



그 결과 ‘강간 또는 강간 미수’, ‘연인 사이의 동의하지 않은 키스나 포옹’을 제외하고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었으며 그 정도가 모두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화장실/탈의실 훑쳐보기’에 대해서는 ‘그렇다’에 대답한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속옷 절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성 비율이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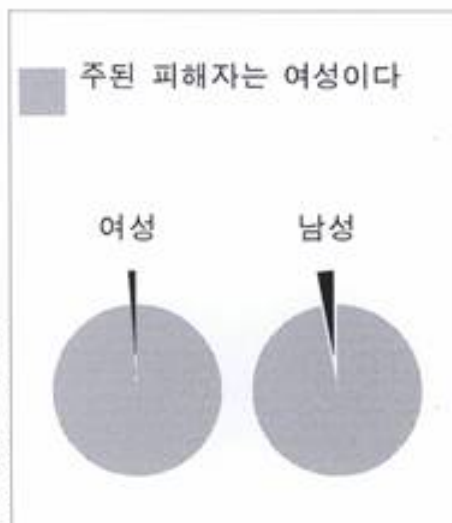
‘그렇다’고 대답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는 대체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기’, ‘음담패설’, ‘성적 편견이 담긴 말이나 행동’ 등 신체적이지 않은 언행이었으며 이 경우 그 인식 차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아닌 행위들도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좀 더 관대하였습니다.

한편 적지 않은 응답자가 성폭력을 강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과 ‘성폭행’을 혼동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는 성폭력을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비단 강제 성관계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적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굳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정의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성폭력’은 강간, 강간 미수, 강제 추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불일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성폭력 실태 인지 : 실제 성폭력 실태에 대한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의 인지 정도 확인

【3-1】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이다	남성이다	전체
여성	98.7% (1007명)	1.3% (13명)	100% (1020명)
남성	96.9% (1271명)	3.1% (41명)	100% (1312명)
전체	97.7% (2278명)	2.3% (54명)	100% (2332명)



여성이족부의 의뢰를 받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작성한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인구 중 신체적 성폭력의 피해는 4.7%, 남성인구 중 신체적 성폭력의 피해는 0.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7년 전국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97.4%가 여성이었으며,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에서도 피해자의 96.9%가 여성이라는 점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입니다. 여성/남성 응답자 모두 압도적인 비율로 여성이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라고 답했으므로 성폭력이 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2】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여성	남성	전체
모르는 사람 사이**	96.2% (984명)	93.5% (1272명)	94.7% (2256명)
선후배 사이**	93.8% (960명)	90.5% (1231명)	91.9% (2191명)
가족 사이***	62.2% (636명)	54.9% (746명)	58.0% (1382명)
친구 사이*	83.1% (850명)	78.8% (1071명)	80.6% (1921명)
연인 사이***	78.5% (803명)	68.3% (929명)	72.7% (1732명)
사제 사이***	81.3% (832명)	74.8% (1017명)	77.6% (1849명)
부부 사이***	60.4% (618명)	52.3% (711명)	55.8% (1329명)
친척 사이***	73.2% (749명)	59.1% (804명)	65.2% (1553명)
동성 사이	53.8% (550명)	57.1% (776명)	55.7% (1326명)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반면 친밀한 사이(친척, 부부, 연인, 가족)에서는 응답률이 과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친밀한 사이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응답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

성의 경우 친밀한 사이에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유지했으나 남성의 경우 그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심한 정도의 성폭력일수록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부간 강간이나 데이트 강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정확한 인식이 요청됩니다.

한편 '동성 사이'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동성 간 성폭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인식 교정도 요청됩니다. 또, '동상 사이' 성폭력에 대해서만큼은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더 많았으나 그 응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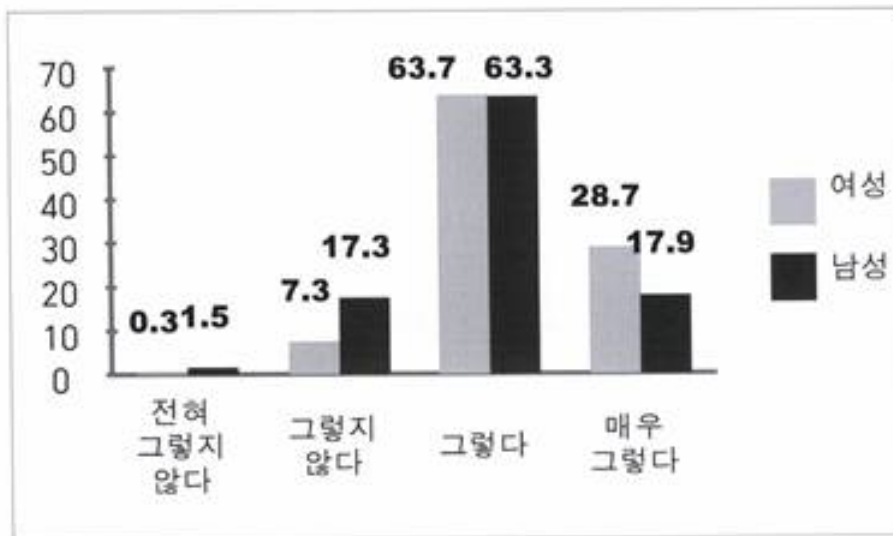
4. 성 인식 :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의 성 인지에 대한 지형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잘못된 성적 통념이나 편견이 통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지 파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성폭력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 어떤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위원회를 마련하는 데 있어 위원회 구성원의 성별을 조율하는 것이 유의미한지 알아볼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서 절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약 97%)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흔히 성폭력 사건에서 성적 통념이 문제가 될 때, 그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몇 가지 문항은 성폭력 피해자를 여성으로 간주해 놓은 전제 하에 설계했습니다. 예컨대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나 '성폭력은 주로 노출이 심한 젊은 여성들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이 그런 유형의 질문들입니다.

【4-1】 피해자의 상황판단이나 입장을 중심으로 사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	0.3% (3명)	7.3% (73명)	63.7% (641명)	28.7% (289명)	100% (1006명)
남성	1.5% (19명)	17.3% (226명)	63.3% (826명)	17.9% (234명)	100% (1305명)
전체	1.0% (22명)	12.9% (299명)	63.5% (1467명)	22.6% (523명)	100% (23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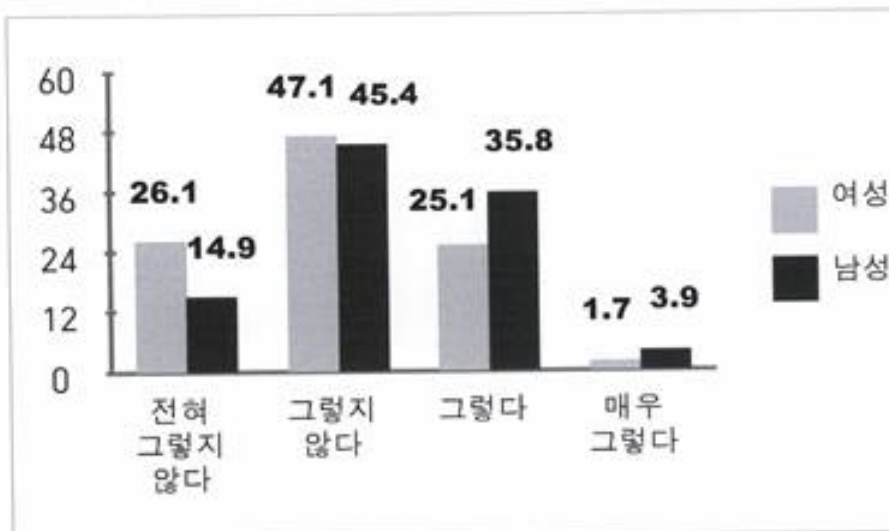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즉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서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추후 성폭력 관련 규정이나 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달랐다는 점에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은 10% 미만이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남성은 약 20%에 육박했습니다.

【4.2】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	26.1% (263명)	47.1% (474명)	25.1% (253명)	1.7% (17명)	100% (1007명)
남성	14.9% (194명)	45.4% (591명)	35.8% (466명)	3.9% (51명)	100% (1302명)
전체	19.8% (457명)	46.1% (1065명)	31.1% (719명)	2.9% (68명)	100% (2309명)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도리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의과대학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간 피해자가 오히려 수상하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통념은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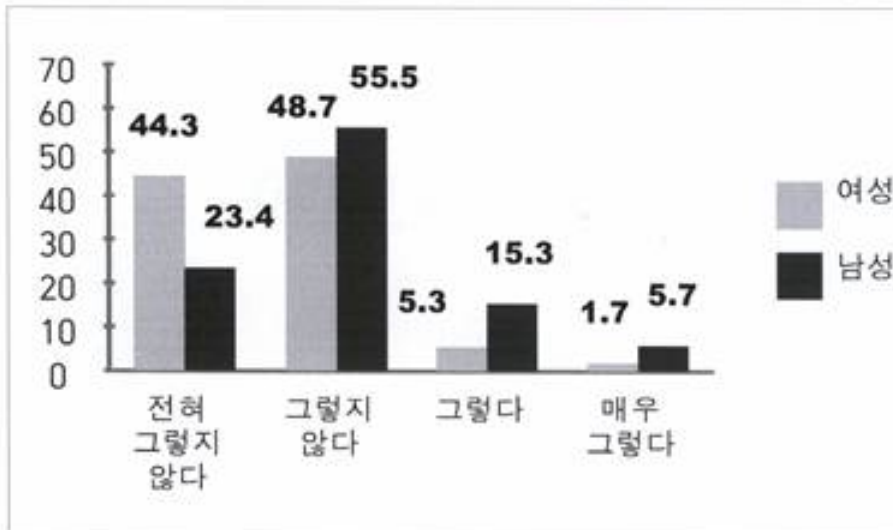
자에게 불리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공동체 복귀와 상처 치유를 어

럽게 만듭니다.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다수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 반대를 보였으나 약 30%의 여성과 40%의 남성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차이가 나타났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성도 상당하다는 것을 봤을 때는 시정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4.3】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	44.3% (447명)	48.7% (491명)	5.3% (53명)	1.7% (17명)	100% (1008명)
남성	23.4% (306명)	55.5% (724명)	15.3% (200명)	5.7% (75명)	100% (1305명)
전체	32.6% (753명)	52.5% (1215명)	10.9% (253명)	4.0% (92명)	100% (2313명)



이에 동의한다는 것은, 성공한 강제 성관계는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은 주로 여성은 마땅히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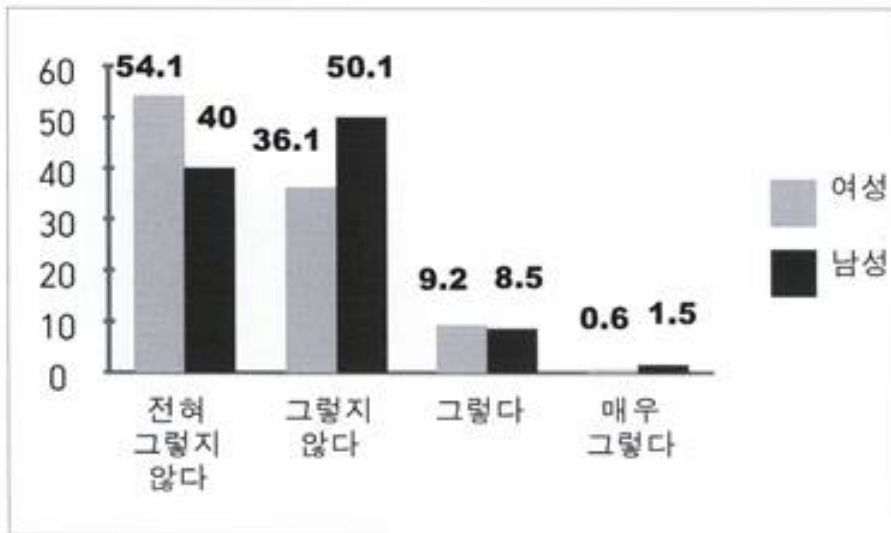
내심 허용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니었냐고 의심하는 입장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입장은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굉장히 협소하게 적용하게 만들어 강간죄 조항이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으로서 강제 성관계가 주로 상당한 폭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체적, 물리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성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성폭력은 발생한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이 대단히 위축되어 제대로 저항을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고려대학교 구성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과반에 가까운 여성은 이에 대한 강한 거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약 20%의 남성은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4-4】 여성에 비해 남성은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	54.1% (543명)	36.1% (362명)	9.2% (92명)	0.6% (6명)	100% (1003명)
남성	40.0% (519명)	50.1% (651명)	8.5% (110명)	1.5% (19명)	100% (1299명)
전체	46.1% (1062명)	44.0% (1013명)	8.8% (202명)	1.1% (25명)	100% (23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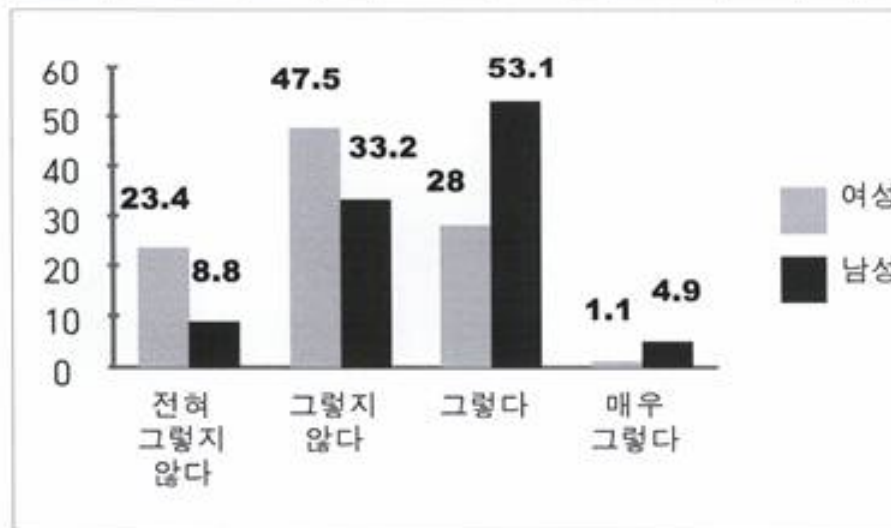


주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통념이며 사회관계를 자칫 생물학적으로만 환원시킬 우려가 있는 통념입니다.

90%가 넘는 전체 응답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경우 과반 이상이 강한 거부를 드러냈습니다.

【4-5】 여성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	23.4% (235명)	47.5% (478명)	28.0% (282명)	1.1% (11명)	100% (1006명)
남성	8.8% (114명)	33.2% (431명)	53.1% (689명)	4.9% (64명)	100% (1298명)
전체	15.1% (349명)	39.5% (909명)	42.1% (971명)	3.3% (75명)	100% (2304명)



물론 여성이 평소에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성폭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이 여성과 남성 사이 권력관계의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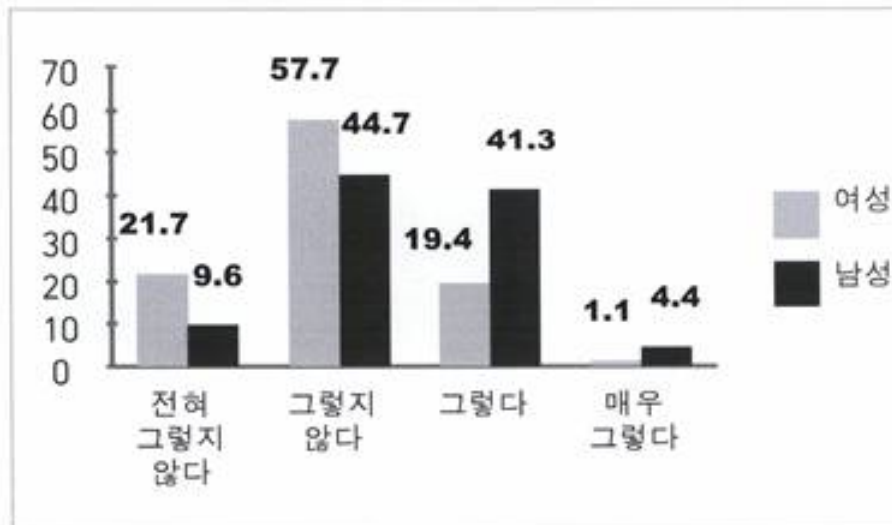
리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면, 성폭력은 여성이 조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여성이 조심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력을 구조적인 폭력이 아니라 개인 간에 일어나는 범죄의 일종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범죄를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유발했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들을 분석하게 되고 도리어 여성의 평소 행태나 행실을 규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여성이 조심하느냐에 따라 성폭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여성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입장과는 연결되기 쉽습니다.

성폭력과 여성의 조심성 여부를 연결시키는 것은 따라서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60%에 가까운 남성은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전체 구성원으로 보더라도 45% 정도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이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우 명제)’로 이어지기 쉬우며 도리어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관계가 미약한 두 항을 연결시키는 통념에 대한 시정이 즉각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4-6】 성폭력은 주로 노출이 심한 젊은 여성들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	21.7% (218명)	57.7% (579명)	19.4% (195명)	1.1% (11명)	100% (1003명)
남성	9.6% (125명)	44.7% (582명)	41.3% (538명)	4.4% (57명)	100% (1302명)
전체	14.9% (343명)	50.4% (1161명)	31.8% (733명)	3.0% (68명)	100% (2305명)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법기관에 의해 공식 집계된 성폭력 사건 중 흔히 ‘노출이 심한 젊은 여성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20대가 피해자였던 경우는 전체의 38.3%에 해당합니다. 30세 이상이 피해자인 경우는 30% 정도이며, 20세 미만

인 경우는 32% 정도입니다. 즉 20대가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외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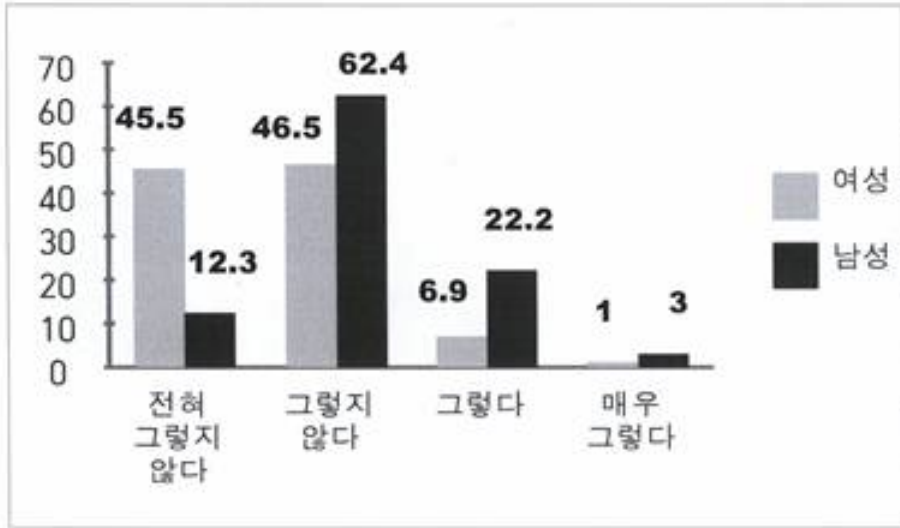
명중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대단히 빈번합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성폭력이란 성적 쾌감을 얻는 행동의 일환이라는 명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폭력이 성적 쾌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성폭력은 어디까지나 타자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성적 매력’ 등을 중심에 두게 되면 성폭력을 거부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사유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과거 성경험이 있었는지를 묻거나 성폭력을 당하던 중에 성적 쾌감을 느꼈냐고 묻는 사법기관의 행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이 여전히 성폭력이 노출이 심한 젊은 여성에게 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40% 이상이 그렇다는 것은 현재 고려대학교 내 성 인식 지형에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4-7】 여성이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	45.5% (455명)	46.5% (465명)	6.9% (69명)	1.0% (10명)	100% (999명)
남성	12.3% (159명)	62.4% (806명)	22.2% (287명)	3.0% (39명)	100% (1291명)
전체	26.8% (614명)	55.5% (1271명)	15.5% (356명)	2.1% (49명)	100% (22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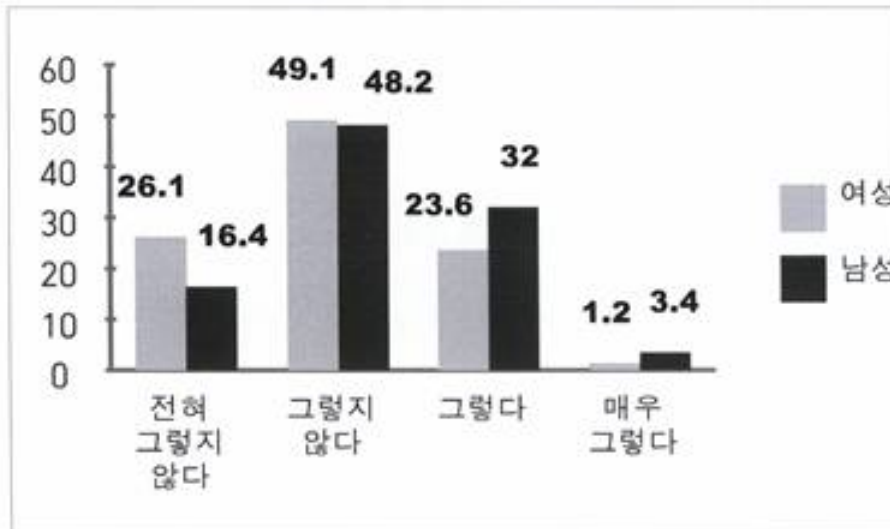
이미 여성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에도 나타나 있듯이 90%가 넘는 여성들은 여성이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과 여성이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별개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45%가 넘는 여성은 스킨십의 허용과 성관계의 허용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남성들의 대부분도 부정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높은 수의 남성은 강한 부정보다는 약한 부정을 보였고 20%가 넘는 남성은 여전히 그런 동일시를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실제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런 동일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자칫하면 동의 없는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4-8】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	26.1% (257명)	49.1% (484명)	23.6% (232명)	1.2% (12명)	100% (985명)
남성	16.4% (210명)	48.2% (619명)	32.0% (410명)	3.4% (44명)	100% (1283명)
전체	20.6% (467명)	48.6% (1103명)	28.3% (642명)	2.5% (56명)	100% (2268명)



바로 이번 고려대 성폭력 사건이 이 문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자칫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이 술에 취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술에 취했으면 더 높은 보호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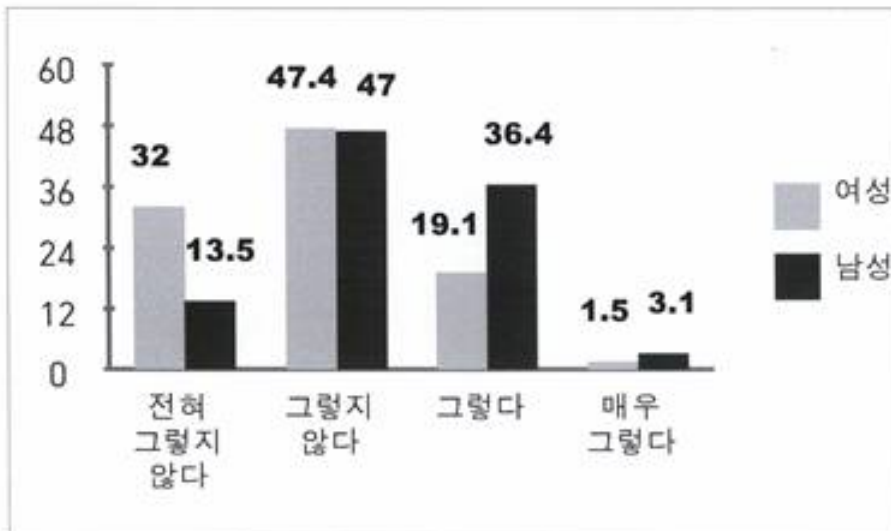
를 필요로 하지 더 쉽게 그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에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항에 동의한다는 것은 여성이 ‘온전한’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코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술에 취했든, 취하지 않았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든,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을 입었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각종 제한을 두는 것은 여성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특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응답자는 술에 취한 여성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남성의 35% 가량은 술에 취한 여성의 책임을 긍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인식은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환경으로 직결되며 피해자의 공동체 복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4-9】 여성이 ‘싫다’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	32.0% (314명)	47.4% (465명)	19.1% (188명)	1.5% (15명)	100% (982명)
남성	13.5% (172명)	47.0% (598명)	36.4% (463명)	3.1% (40명)	100% (1273명)
전체	21.6% (486명)	47.1% (1063명)	28.9% (651명)	2.4% (55명)	100% (2255명)



소위 여성이 'no'가 'yes'일 수 있는냐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높은 비율의 여성은 여성의 'no'는 'no'라고 응답해 자신의 응답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과반 이상이 이런 여성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

면 40% 가까이 되는 남성은 여성의 'no'가 진심이 아닐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의 20% 이상이 'no'가 진심이 아닐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여성의 'no'가 진심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80%의 여성은 'no'가 'no'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서 여성의 거절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동의 없는 강압적인 성관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성 인식 문항들 모두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해당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즉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계산하고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계산했습니다.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설령 많은 남성들이 어떤 문항에 부정적으로 대답했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여성과 다르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약한 부정과 강한 부정, 약한 긍정과 강한 긍정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첫 번째 문항을 제외하고 여성은 문항에 대한 강한 부정을 상당히 많이 나타낸 데 비해 남성은 주로 약한 부정을 하거나 약한 긍정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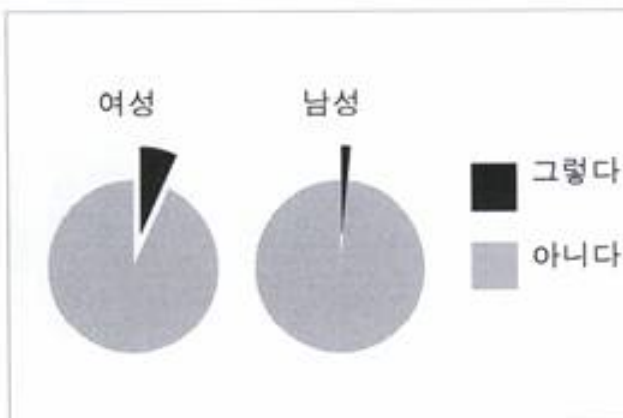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위원들에는 반드시 상당수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정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이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그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성폭력 피해 실태 :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조사

학내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았습니다. 유의할 점은 양적 서면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실제 자기가 당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사건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의 겨우 2.3%만이 실제로 피해를 사법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응답자가 실제로 자기 피해를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듯이 모든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5-1】 학내에서 신체적 성폭력(강간, 강간 미수, 동의 없는 성관계, 원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7.1% (70명)	92.9% (910명)	100% (980명)
남성	1.7% (21명)	98.3% (1236명)	100% (1257명)
전체	4.1% (91명)	95.9% (2146명)	100% (22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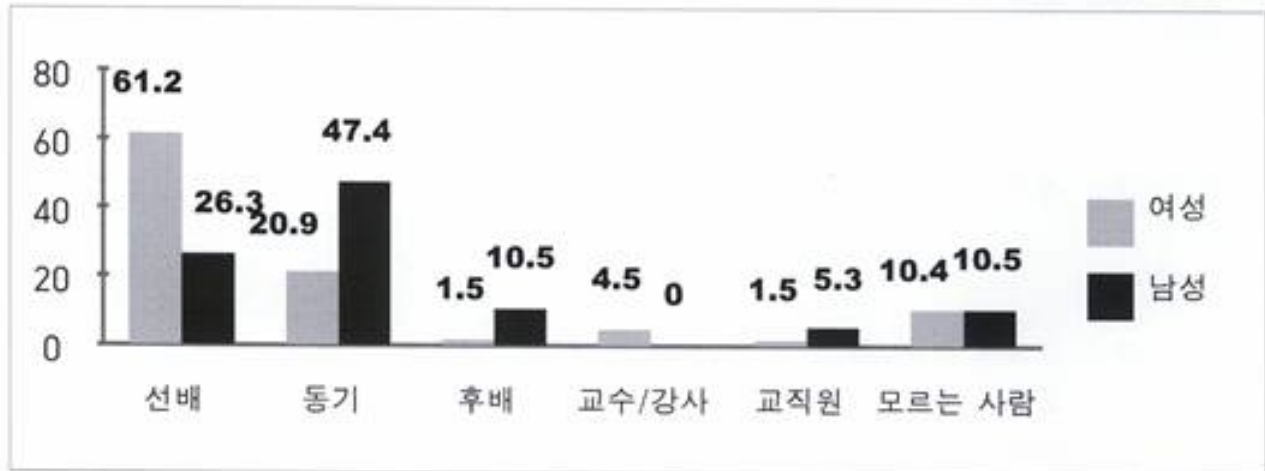
여성의 7.1%와 남성의 4.1%가 신체적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 추정치를 내보면,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원 내 여학생 7,194명 중 510명 이상이 신체적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실제 피해자 중 응답자에 국한된 숫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자의 전체 추정치는 더 높을 것입니다.

설령 실제 피해자와 응답자 수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510명이라는 전체 추정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며, 성폭력이 특수하고 매우 예외적이라는 통념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질문은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만을 물어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고려대학교라는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5-1-1】 5-1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경우,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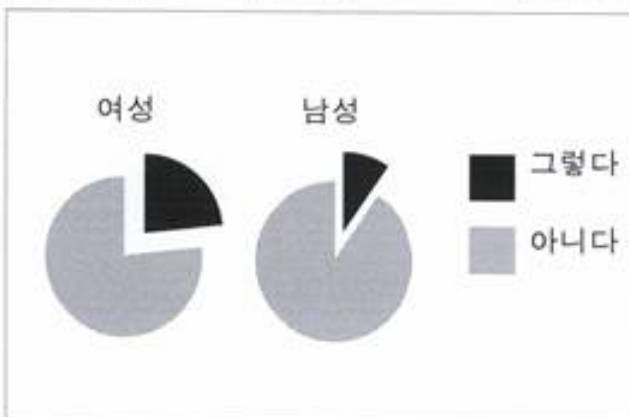
	선배	동기	후배	교수/강사	교직원	모르는 사람	전체
여성	61.2% (41명)	20.9% (14명)	1.5% (1명)	4.5% (3명)	1.5% (1명)	10.4% (7명)	100% (67명)
남성	26.3% (5명)	47.4% (9명)	10.5% (2명)	0.0% (0명)	5.3% (1명)	10.5% (2명)	100% (19명)
전체	53.5% (46명)	26.7% (23명)	3.5% (3명)	3.5% (3명)	2.3% (2명)	10.5% (9명)	100% (86명)



여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선배라고 응답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신체적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성폭력의 대부분은 주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남성의 경우 표본의 수(19명) 자체가 너무 적어서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2】 학내에서 언어적 성폭력(신체에 대한 노골적 묘사, 원하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 대상화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23.2% (227명)	76.7% (751명)	100% (978명)
남성	9.6% (121명)	90.4% (1134명)	100% (1255명)
전체	15.6% (348명)	84.4% (1885명)	100% (2233명)



남성의 9.6%와 여성의 23.2%가 언어적 성폭력을 호소했습니다. 여성의 전체 추정치는 7,194명 중 1669명에 달합니다.

언어적 성폭력은 신체적 성폭력보다 경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나 불쾌감을 생각하면 결코 그 정도에 있어서 덜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언어

적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여성은 성적 대상화와 언어적 배제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폭력은 그것이 경미해 보인다는 점 때문에 도리어 덜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주는 효과 면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볼 때, 특히 그 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결코 신체적 성폭력보다 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언어적 성폭력은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징계나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관계로 오히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련 교육을 통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5-3】 학내에서 성차별(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등) 및 성차별적 발언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20.3% (198명)	79.7% (778명)	100% (976명)
남성	13.5% (170명)	86.5% (1085명)	100% (1255명)
전체	16.5% (368명)	83.5% (1863명)	100% (2231명)



여성의 20% 정도가 학내 성차별을 경험했으며, 남성의 14% 정도도 학내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역차별 경험도 포괄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전체 추정치를 보면 7,194명 중 1460명이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언어적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보다 오

히려 성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보아, ‘성차별’을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요된 형태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6. 학내 생활에 따른 불편감 :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감의 성차

고려대학교 구성원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학교 생활들에 따라 느끼게 되는 불편감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고자 몇 가지 문항들을 물어봤습니다.

【6-1】 학내 구성원과의 술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13.0% (127명)	87.0% (851명)	100% (978명)
남성	14.4% (181명)	85.6% (1073명)	100% (1254명)
전체	13.8% (308명)	86.2% (1924명)	100% (2232명)

【6-2】 학내에서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공간에 다른 사람의 접근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15.1% (148명)	84.9% (830명)	100% (978명)
남성	5.0% (62명)	95.0% (1190명)	100% (1252명)
전체	9.4% (210명)	90.6% (2020명)	100% (2230명)

【6-3】 동아리방 내지 과실에서 특정 성의 편중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18.0% (176명)	82.0% (801명)	100% (977명)
남성	15.7% (197명)	84.3% (1057명)	100% (1254명)
전체	16.7% (373명)	83.3% (1858명)	100% (2231명)

【6-4】 응원전을 할 때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14.9% (145명)	85.1% (829명)	100% (974명)
남성	9.7% (122명)	90.3% (1130명)	100% (1252명)
전체	12.0% (267명)	88.0% (1959명)	100% (2226명)

【6-5】 과반/동아리/학회 학우들과 같이 한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별로 인해 소외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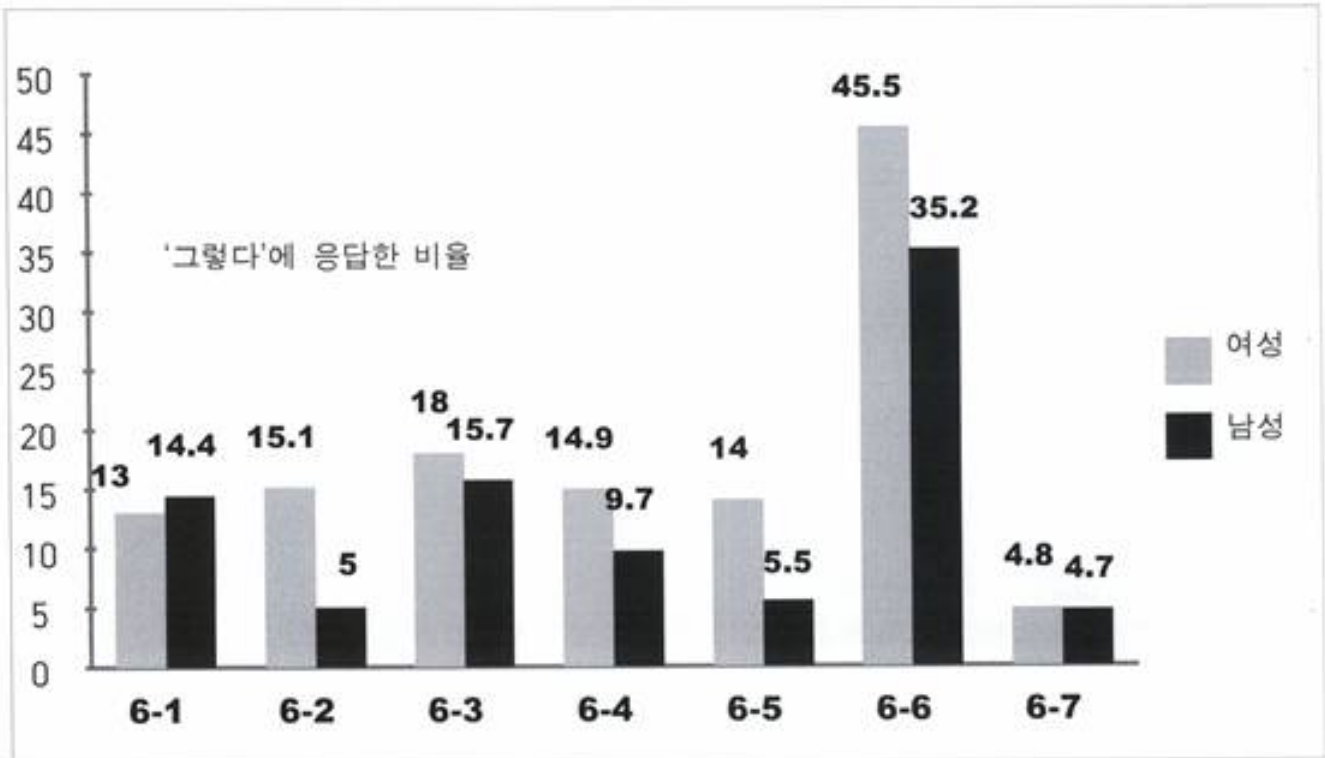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14.0% (137명)	86.0% (842명)	100% (979명)
남성	5.5% (69명)	94.5% (1185명)	100% (1254명)
전체	9.2% (206명)	90.8% (2027명)	100% (2233명)

【6-6】 FM이나 AM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45.5% (443명)	54.5% (531명)	100% (974명)
남성	35.2% (437명)	64.8% (803명)	100% (1240명)
전체	39.7% (880명)	60.3% (1334명)	100% (2214명)

【6-7】 스터디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서 자신의 성별로 인해 소외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4.8% (47명)	95.2% (931명)	100% (978명)
남성	4.7% (58명)	95.3% (1181명)	100% (1239명)
전체	4.7% (105명)	95.3% (2112명)	100% (2217명)



술자리, 응원전에서의 동작, FM/AM으로 자기 소개하기 등 고려대학교 구성원에게 ‘통과의례’로서 제시되는 경험들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불편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여학생의 비율(15.1%)이 남학생의 비율(5.0%)보다 세 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문화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 자체가 대체로 낮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설문조사 설계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FM/AM에 대한 불편감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상당히 높았다는 점은 예외이며,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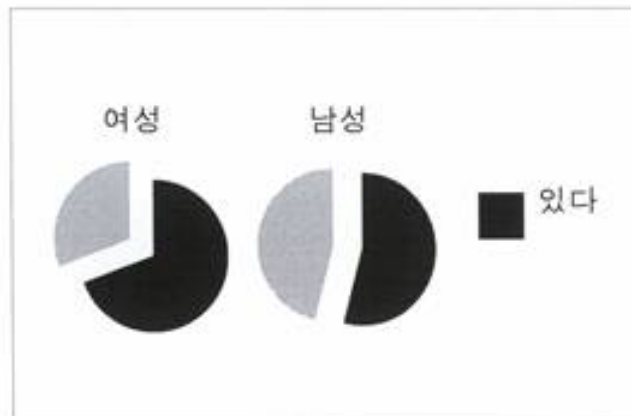
볼 때 FM/AM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됩니다.

7. 성폭력 관련 교육 실태 및 성폭력 관련 제도 인식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이 성폭력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이 문항들에 대한 성별 응답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여성과 남성의 응답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항목들이기에 이 문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7-1】 성폭력에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정보나 지식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전체
여성	69.3% (674명)	30.7% (298명)	100% (972명)
남성	54.1% (667명)	45.9% (566명)	100% (1233명)
전체	60.8% (1341명)	39.2% (864명)	100% (22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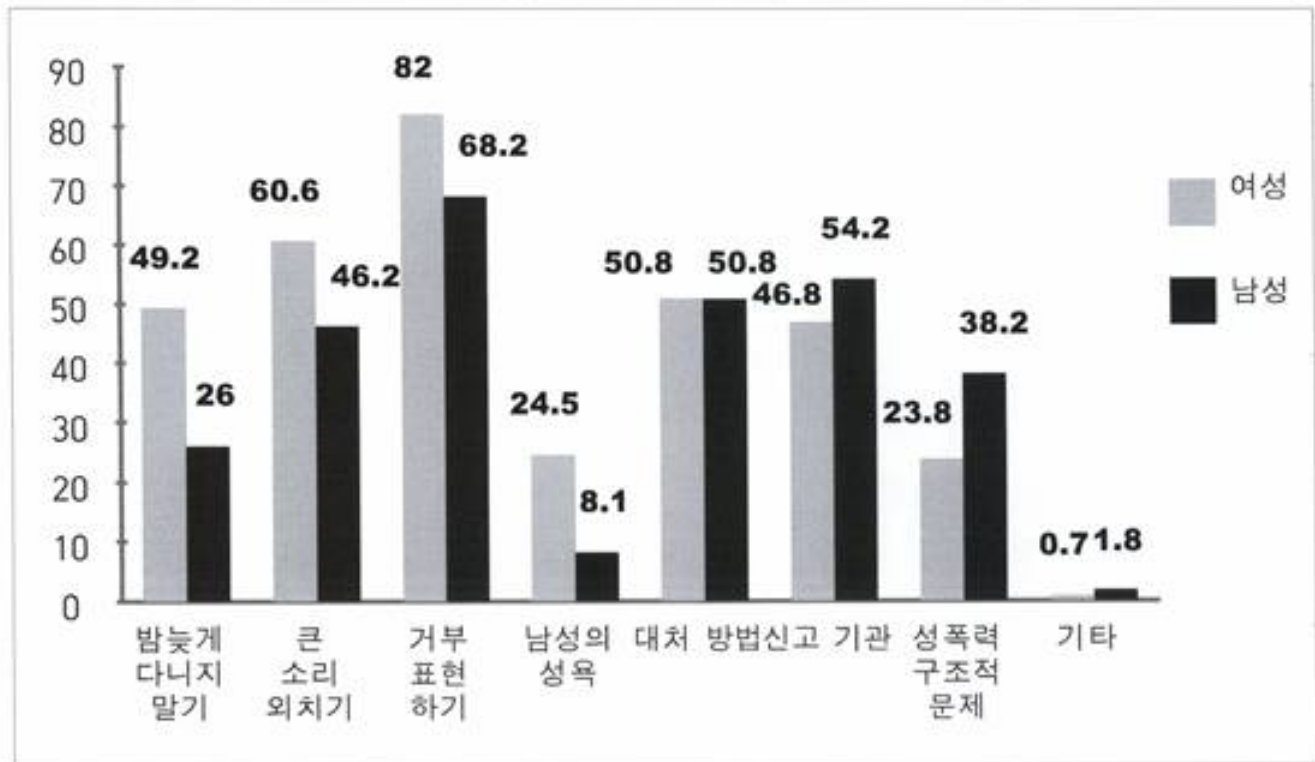
전체의 60%가 넘는 응답자가 성폭력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정보와 지식을 나눈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볼 때는 대다수의 고려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구성원에 대한 교육 자체가 시급하긴 하지만 이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 역시, 교육받은 내용이나 교육을 받게 된 통로를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7-1-1】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수응답)

	여성	남성	전체
밤늦게 다니지 말기	49.2% (349명)	26.0% (183명)	37.6% (532명)
피해 시 큰 소리로 외치기	60.6% (430명)	46.2% (326명)	53.4% (756명)
거부의 표현을 확실히 하기	82.0% (582명)	68.2% (481명)	75.1% (1063명)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강한 성욕을 지녔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	24.5% (174명)	8.1% (57명)	16.3% (231명)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50.8% (361명)	50.8% (358명)	50.8% (719명)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들	46.8% (332명)	54.2% (382명)	50.5% (714명)
성폭력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인 문제점들	23.8% (169명)	38.2% (269명)	31.0% (438명)
기타	0.7% (5명)	1.8% (13명)	1.3%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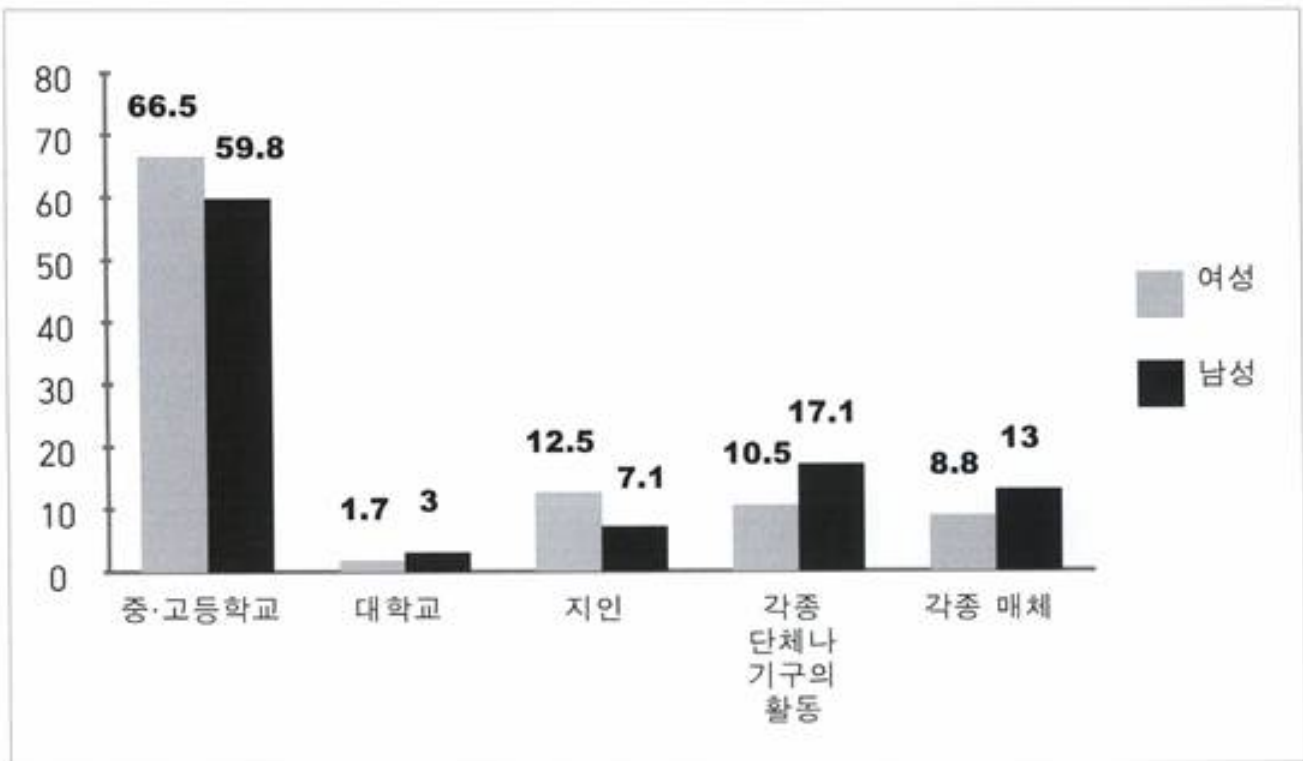


교육의 내용은 ‘거부의 표현을 확실히 하기’ → ‘피해 시 큰 소리로 외치기’ →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 즉각적인 대처 위주였습니다. 물론 당장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인 만큼 대처 위주의 교육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처만 가지고는 성폭력을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성폭력이 어떤 문제인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성폭력에 대한 보다 심화되고 지속적인 교육이 요청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강한 성욕을 지녔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와 같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자칫 잘못된 성적 통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도 교육되고 있는 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7-1-2】 위와 같은 교육이나 지식, 정보 공유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여성	남성	전체
중·고등학교 교육	66.5% (309명)	59.8% (318명)	62.9% (627명)
대학교 교육	1.7% (8명)	3.0% (16명)	2.4% (24명)
지인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등)	12.5% (58명)	7.1% (38명)	9.6% (96명)
각종 단체나 기구의 활동 (캠페인, 세미나 등)	10.5% (49명)	17.1% (91명)	14.0% (140명)
인터넷, 잡지, 서적, 영상 등의 매체	8.8% (41명)	13.0% (69명)	11.0% (110명)
전체	100% (465명)	100% (532명)	100% (99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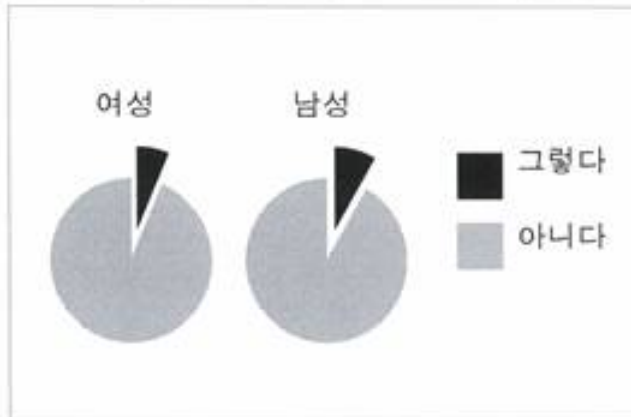


더 큰 문제는 이런 교육 등이 이루어진 경로로 압도적인 다수가 중·고등학교라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중등교육과정(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관련 교육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과반을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가 11학번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단순히 중등교육과정을 마친지 얼마 안 된 표본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를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채 3%도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담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에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고려대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현실과 대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2】 성폭력을 당했을 때 학칙이나 처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6.4% (61명)	93.6% (896명)	100% (957명)
남성	8.3% (99명)	91.7% (1100명)	100% (1199명)
전체	7.4% (160명)	92.6% (1996명)	100% (21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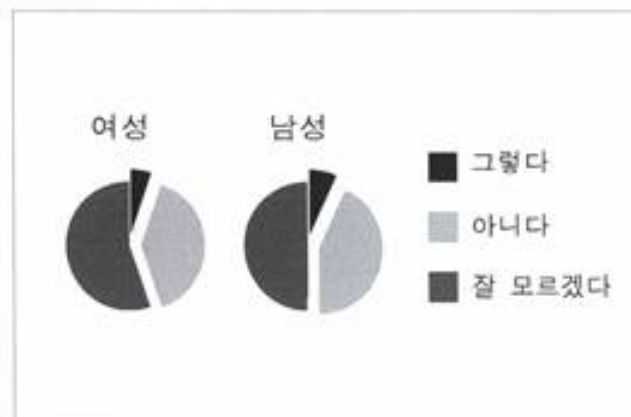


사건의 쌍방 혹은 일방이 고려대학교 구성원인 경우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양성평등센터는 해당 사건을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관련 전문가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한 반면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는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

학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사법기관과 양성평등센터의 도움을 다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관련 학칙이나 처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7.4%에 불과합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7-3】 동아리, 과반, 학회 등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성폭력이 발생 했을 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여성	5.2% (50명)	39.5% (377명)	55.3% (528명)	100% (955명)
남성	6.9% (83명)	43.2% (517명)	49.9% (597명)	100% (1197명)
전체	6.2% (133명)	41.5% (894명)	52.3% (1125명)	100% (21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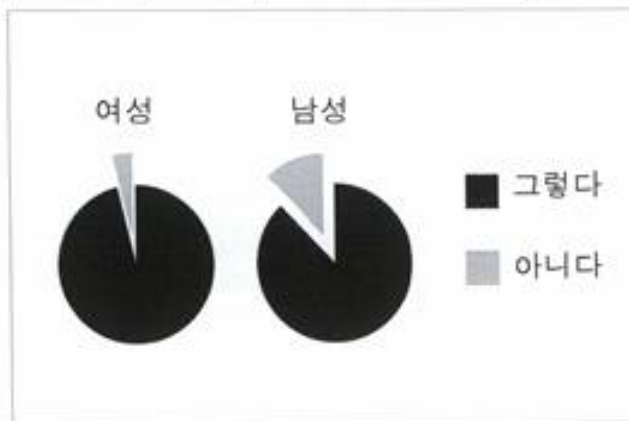


학교 규정이 아니더라도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단과대/과반/동아리/학회 등에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대답은 6.2%에 불과했습니다. 관련 대응 매뉴얼이 아예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상당하지만,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고려대학교 구성원

들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 규정은 물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매뉴얼의 존재 유무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7-4】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체
여성	96.2% (918명)	3.8% (36명)	100% (954명)
남성	87.8% (1042명)	12.2% (145명)	100% (1187명)
전체	91.5% (1960명)	8.5% (181명)	100% (2141명)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91.5%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사건들을 통해 그 새로운 대책 마련에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성폭력과 관련된 학내 규정들이나 자기가 속한 공간의 매뉴얼의 존재 유무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총

체적이고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성폭력 교육 의무화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며, 학생 자치단위에서도 관련 매뉴얼이 있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 만들 시점입니다. 아울러 1회성 성폭력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간담회/세미나/모임 등의 형태로 다방면의 대책이 요청됩니다. 이에 대한 대담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는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과반 학생회, 각종 학회, 동아리, 소모임 등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제안합니다.

첫째, 여성국/여성부/여성위원회/여성주체 등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설치 혹은 담당자 배정.

둘째, 성폭력 규정 개정 및 표준 반(反)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운동에 참여.

셋째, 고려대학교 전 구성원에 대한 반성폭력 의무 교육제도 도입 운동에 참여.

넷째, 새내기 배움터 등 활동에 반성폭력 교육 실시.

II. 2011년 10월 27일

학생 대표자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7일 (목) 19시 문과대학 서관 202호 [약 3시간 동안 진행]

◆ **참가 패널** : 김푸른솔(반성폭력연대회의/사회자), 남기훈(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방민우(법과대학 학생회장), 아림(여학생위원회 대표), 유지영(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유지인(반성폭력연대회의), 홍해린(조형학부 학생회장)

* 문과대 학생회장은 발제문은 제출하셨으나 토론회에는 불참하였습니다.

< 본 글은 토론회 당시 서기록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전에 패널들에게 발제문을 부탁드렸고 사정 상 준비해오지 못하신 분들은 당일 발언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본 글에서 발제문은 질문별로 나눠서 수록하였습니다. 질문 별로 나눠서 답을 제출하지 않은 문과대 학생회장의 발제문은 세 번째 항목[3.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전문 수록하였습니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1부와 2부 구분 없이 문항마다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을 병행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

사회자 : 문과대 학생회장님께서 토론회 당일 새벽에 참가를 못하신다고 통보 하셨습니다. 반성폭력연대회의에서는 주최 측으로서 사과드리면서 동시에 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사회자 발제문>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운영위원 김푸른솔입니다. 지난 5월 일어났던 고려대 의과대학 집단성폭력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학생 3명이 같은 과 동기 여학생 1명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성폭력을 행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학내 는 물론이고 학외에서도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학교 징계, 형사 처벌 요구가 빗발쳤고,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도 요청되었습니다. 지난 9월 가해자 학생들은 출교처분되었고, 몇 주 전 형사법정에서 실형 선고되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 학생들은 고려대학교라는 공동체, 학생사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곳에는 여전히 피해자 여학생, 그리고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구체적 사건이 일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이 사건 자체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야기하거나 논의할 것도 없다고 말할지

-
- 1) ① 고려대 의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 달라, ② 성폭력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③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④ 각 단위들은 이후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가?

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90년대 자료만 보아도 고려대 내 성폭력 사건은 수년 간격으로 이슈화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90년대 후반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거친 2000년대 들어서도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더 낮았던 때에도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반성폭력연대회의가 진행한 고려대학교 구성원에 대한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내 성폭력 피해자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자보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고려대학교 여학생의 7%는 신체적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23%는 언어적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슈화되고 공론화되는 사건들은 말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사건들은 성폭력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안심하거나 추후 활동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폭력연대회의는 지난 사건을 되돌아보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며, 더 나아가 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성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 학생대표자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고려대학교 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유지영,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남기훈, 여학생위원회 대표 이아림, 문과대학 학생회장 김지윤, 법과대학 학생회장 방민우, 조형학부 학생회장 홍해린, 반성폭력연대회의 유지인 씨가 패널로 참여합니다. 1부는 패널 중심의 토론으로 진행이 되며, 2부는 방청객과의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첫째 고려대 의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각 입장과 활동 소개, 둘째 성폭력의 발생원인, 셋째 여러 움직임에 대한 평가, 넷째 앞으로의 사업 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토론회 1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공개된 6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활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학내활동과 학외활동도 있었으며, 학내활동 중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활동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활동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사건을 파악하는 방식, 사건에 대해 내렸던 평가와 입장이 각각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각 패널 분들께서 고려대 의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셨으며, 그에 따라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를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토론회를 풀어 가보겠습니다.

1. 고려대 의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 달라.

남기훈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 학생회장 08학번 남기훈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으로 나온 날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의과, 예과, 본과를 아우르는 학생대책위를 조직하고 학교와 대화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싶었고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속해 있었기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해야 하며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슈화 된다면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더 지장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학교에서 가해자들에게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는 공고를 확인한 이후, 공개적인 활동은 최대한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의과대학 학장단 교수님과 직접 만나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건 해결과정을 확인하며, 학생회, 대책위원회, 학장단과 논의를 해나갔습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입장은 2차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한, 저희 의과대학 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라는 것에 자숙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동아리, 과반모임에서의 술자리를 자제하도록 하고, 동아리 엠티를 갈 때 학교에 알리고 지도교수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모든 의과대학 내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음주를 금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방민우 :

<발제문>

- 정치 이슈화에 반대한다. 24,5의 어린 학생들의 형사사건이다.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남은 삶을 전부 부정할 만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동일한 취지로 이슈화 금지를 계속 주장했지만 워낙 여론이 좋지 못하고 기회가 없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1번 문항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우선,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간의 형사사건이 이슈화 된 것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사 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수강간이라던가,

고려대학교를 어떤 놀림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결국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슬펐고 그렇게 안 되도록 언론사에 접촉을 해보거나, 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법대 회장으로서는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문화, 술자리 문화에 관한 체계적인 고려대학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려대학교의 05학번 학생으로서 언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만 아는 그들만의 문제를 사회 문제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유지영 :

<발제문>

같은 과에서 함께 6년을 생활해온 학우간에 이루어진 성폭력과 이후 이어진 2차 가해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말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학우들, 그리고 시민사회적 분노가 높았고 사회 안팎에서 가해자 징계의 요구가 뜨거웠다.

총학생회에서는 전학대회 전체 학우들의 의지를 모아 피해자 징계에 대해 논의코자 하였고 그러나 전학대회 당일, 전학대회를 3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고 학교 측은 사건발생 후 100여일간 미진하게 대응해오다가 징계를 결정했다.

유지인 : 반성폭력연대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인이라고 합니다.

<발제문>

처음에 소식을 듣고 충격과 분노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생각은 많은 학우들이 공유했었고, 많은 단위에서 대자보 부착 등 대응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석순, 여학생위원회, 생활도서관은 서로의 입장이 비슷하며, 따라서 함께 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반성폭력연대회의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이후 더 많은 단위가 함께 하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이슈화되었는데도 학교 측 대응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성폭력연대회의에서는 학교 상벌위원회를 규탄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대자보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이 사건이 덮이지 않도록 하기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였으며, 개별 사건을 넘어서 전반적인 성폭력을 근절하는 활동을 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설문조사를 준비하였습

니다. 9월 3일 중운위로부터 특별회의로 인준받았습니다. 개강 직후에는 반성폭력 운동 선포식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때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9/5 출교 후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어 피해자 치유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이 가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지지업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두 차례 대리인께 전해드렸습니다. 9/27에는 생활도서관에서 성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중이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업 소개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듯이, 우선 이 사건의 해결에서 피해자가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있기에, 가해자에게 응당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처벌은 명료하지만 피해자의 상처 치유라는 점은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목적을 잊지 않은 채, 모든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공동체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책임론과 같은 이중잣대 인식을 바꿔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성폭력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성폭력연대회의를 꾸리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계획입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몇몇 나쁜 사람이나 어쩔 수 없는 본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관계 맺는 방식,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가 배어 있는 관행, 우리에게 내면화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가해자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 가해자들은 결국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사회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두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림 : 여학생위원회 대표 아림입니다.

<발제문>

저희 여학생위원회에서는 당시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로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던 동기 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다니요. 물론,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피해학우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려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① 고려대학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 학우에 대해 2차 가해까지 일삼는 학교의 물지각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동시에 ②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고파스에서 압도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가해학생들을 출교시켜라”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③ 피해학우에 대한 어이없는 편견들에 맞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들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평소 가해학우들과 어떤 관계였냐, 왜 여자혼자 여행에 따라 갔느냐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혐의를 피해학우에게 두는 것은 잘못된 시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 학우에게 또 다른 폐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지만, 이러한 입장들을 학내에 밝히기 위해 자보를 게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성주의 운동을 고민하는 학내 자치단위들과 함께 반성폭력연대회의를 결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여학생위원회에서 여름방학 현장활동을 떠나기 전에 각 단위 여성주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반성폭력 주체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주로 연대회의에 참가하여 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여학생위원회의 주관 하에 피해학우의 대리인과의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자 : 토론은 두 번째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역순으로 발제해주세요.

2. 성폭력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아립 :

<발제문>

성폭력은 특히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개인 대 개인 간에 일어나는 ‘범죄’라고 인식됩니다. 유괴 범죄가 사회적 악자인 아동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범죄도 사회적 악자인 여성에게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의 하나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악간은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성폭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태-싸이코패스가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길에서 저지르는 특수한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된 성폭력의 대부분, 약 80%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며 그마저도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는 사람에 의한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관계 맺는 방식이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관계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 대 개인 간의 특수한 범죄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성폭력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995년도에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폭력은 성‘폭력’이 아니라,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강간이 누군가의 정조를 빼앗은 죄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이야기 하게 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1990년대를 풍미한 활발한 반성폭력 운동의 결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게 된 것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여성 권리 신장의 역사는 곧,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드러내고 성폭력의 범주를 넓혀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폭력이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 여부를 전제로 한 강제적 성기 삽입만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부부강간, 데이트 성폭력, 아동 성폭력 등의 문제들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들의 권리는 얼마나 신장되었나요? 소위 여성 상위시대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극히 일부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직장에서 여성은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승진 대상에서는 제외당하기 일쑤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성폭력은 빈번히 일어나는데, 직장 내 권력 관계에 의해 대부분 은폐당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가사와 양육의 책임은 온전히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비정규직으로 취업전선에 들어갑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성폭력도 크게 보면 이러한 구조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인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성폭력에 대해 서로 인식의 차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서, 두 성간의 대화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여성의 몸을 상품화, 대상화하는 온갖 매체들도 문제입니다. 당장 인터넷에 들어 가보아도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희롱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00녀’ 시리즈 등 여성에 대한 비하와 경멸의 시선들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형성에 올바른 성교육이 부재하다는 점도 한 몫 합니다. ‘여성이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성교

육은 결국은 성폭력은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처럼 복잡적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묻고 이를 바꿔나가려는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만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반성폭력 운동은 곧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구조를 바꿔내는 움직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유지인 :

<발제문>

성폭력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기저에 깔린 생각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자신의 몸, 또는 성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또는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권리가 없으니까요. 물론 이 생각이 의식적으로 있는 경우는 오히려 적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요.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때로 여자가 조심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 좀 아닌데?’라며 어색하게 느끼는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성에 대한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맥락이 조금 달라집니다. 남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도 물론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남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은 ‘남성’이기에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부정당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더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할 때죠. 그렇기에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은 소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 소수이기에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에 남성이 경험하는 성폭력과 맥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이기에 몸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법정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들을 살펴봅시다. 여성에게 그 늦은 시간에 왜 거기 있었는지, 옷은 노출이 심하지 않았는지, 평소 성적 생활이 어땠는지 등등을 질문받습니다. 거의 추궁당한다고 해도 무방하죠. 여성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이나 욕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 사회가 정한 성 각본 속에서

자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순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남성이 어떻게 해도 괜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성이 어떻게 여겨지는지는 우리들의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흔히 성공의 척도를 표현할 때 부, 명예와 함께 여성을 많이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여성은 관계를 맺는 또다른 주체가 아니라 돈이나 힘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객체인 것입니다. 물건은 평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죠. 슬프게도 그래서인지 여성의 외모도 끊임없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얼굴이 예쁘네, 몸매가 좋네, 화장도 안하나, 몸가짐이 그게 뭐냐, 등등. 외모가 스펙이 되는 외모지상주의와는 또 다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인간됨을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인간됨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외모가 필요 이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외모지상주의라면, 여성이 객관화된다는 것은 여성이 성적인 외모 그 자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은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성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이지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 여부는 여성이 보이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순결함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연애나 결혼 등은 성관계를 정도에 따라 허락한다는 의미를 가지기에, 이런 관계에 들어간 여성은 자신의 욕망과는 다르게 걸으려는 '예스'를 하기도 하죠.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구상할 방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관계를 로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싸이코패스라기보다는, 상대방,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 구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간단히 표현하면 구조적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미디어, 가족, 학교 등을 통해 특정한 성역할이나 성행동이 무의식 중에 각인되면서 널리널리 오래오래 퍼집니다. 재생산되는 것이죠. 이 역시 구조적입니다.

유지영 :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발제문>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성의 성욕이 여성보다 강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배움받고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사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몸이 상품으로 대상화되고, 남성의 성욕은 어려서부터 당연한 것, 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 된다. 반면 여성의 성에 대한 욕구는 숨겨야 하는 것, 부끄러운 일,

의식의 부재가 성폭력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과 정황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으나 근본적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한 상황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팀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2. 성폭력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패널 분들의 발제문에 대해 방청객 여러분들이 질문할 내용들을 받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발제를 하는 동안 질문하실 내용들을 정리하고 게시면 되겠습니다.

방민우 :

<발제문>

성에 대한 아노미 현상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전까지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려고합니다. 물론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상위 여성하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교육이나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데이트폭력을 예로 드셨는데, 이러한 일은 당사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 아니면 알기 힘듭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각 사람들 마다 다양합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남성이 권력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른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초기에 미온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활동을 자제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언론 기자들이 무엇을 참고로 기사를 썼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말고 무엇을 알아보고 활동을 하셨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성폭력 문제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아주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고, 증거를 남기는 범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증언과 관련된 것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추행 유무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욱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심 공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경찰 수사 관련한 내용이 공개도 되지 않는데, 언론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신상공개를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여성이 약자이지만, 막상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 가해 학생들은 절대적 약자가 됩니다. 가해학생들이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해서 학교에서 미온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근거 없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이슈화시키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성폭력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성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특히 대학교에서

음주문화와 성문화가 자기가 어떻게 음주를 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성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규범이 없고, 중학교 때부터 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없이 시간 때우기 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남기훈 : 패널로써 네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토론회에 참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2번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성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크고, 성범죄에 관련해서 비교적 관대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양성평등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의대생성폭력사건은 이 세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의과대학은, 특히 본과는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같이 붙어 생활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음에 사건을 접했을 때 절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분은 친했던 분들인데 특히나 동기라는 것은, 6년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가족과 같은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감수성이 부족하다, 이것이 큰 원인이지만 무엇인가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 보았을 때, 성감수성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술 문화도 큰 원인이라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는 우리가 바꾸기 어렵지만 술 문화의 변화는 의과대학생회 내에서 충분히 대처하여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자살이나 타살의 2/3이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쯤 이번 토론에서 술 문화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토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널 중에서 질문하실 분? 방청객 분들 중에서는?

홍해린 : 늦어서 죄송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 21대 학생회장 홍해린이라고 합니다. 발제문은 따로 준비해오지 못했습니다.

아립 : 법대 회장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연애의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의 과정은 또 무섭게도 닮아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너희들 어디까지 갔니?” 이런 질문들 많이 들잖아요. 스킨십의 과정들이 대부분의 연인들이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반증입니다. 데이트폭력이든 부부폭력이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남에도 문제화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언론기사 관련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언론밖에 없고 언론이 사회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무비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미온적이었다고 썼던 이유는, 학교가 피해 학우와 가해 학우 간에 같은 건물에서 시험을 보게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주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나중에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민우 :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같이 시험을 안봤습니다.

아림 : 같은 건물에서 시험을 봤다고 하던데...

남기훈 : 같은 건물에서 시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시험 일정이 있긴 했는데, 학교에서 이 사건을 인식하기 전에도 우연하게도 다른 강의실에서 시험을 봤고, 이 사건을 인지한 후에는 같이 시험 본 적은 없었습니다.

방민우 : 언론의 객관성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발행부수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사 글이 났을 때, '특수강간'이라고 댔는데 지금 판결이 난 것을 보면 특수강간죄 안에 '준강제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부 기사화 시켰고, 그걸 본 고대학우들은 자극적인 말에 따라 자극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성문제는 그들만의 일이기 때문에 외부로 발설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일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실지만 가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 지는 실지 못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사화시키고 사회 문제화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지인 : 기자들이 잘못된 보도를 했다거나 성급한 기사를 썼다는 것, 선정적인 문구를 통해서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단지 사적인 문제로 가도 된다고 성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이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일 뿐인가요? 연애의 과정에서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서 생긴 것이라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성각본 속에서 연애를 하고 아까 여위 대표께서 말씀 하셨듯이 연애 관계에 있어서 보편적인 상

황들이 나타나며, 성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온 것이 배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극적으로 다루거나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간과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강간이냐 아니냐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성기 삽입을 기준으로 해서, 강간과 성추행 이런 용어로 나누면서 범죄의 죄질을 나누지만 실제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와 수치심은 성기삽입여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아까 성폭력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폭력은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극단적인 성폭력이 강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일이 성폭력을 근절하거나 피해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성폭력이라 호명하면서 그 것에 대한 대응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해린 : 방금 말씀하신 반성폭력연대회의 지인 씨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법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사건이 자극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것은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인 씨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이게 강간이냐 준강제추행이냐라고 나누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강간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도 낮아져야하고 학교도 출교가 아닌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느꼈던 정신적 충격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술 취한 상태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도 아니고 '준강제추행'이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방민우 : 다른 두 분 패널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크게 상관없다고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고대 구성원들이 말아야 할 역할이 인터넷에서 고대 의대생들이 까이니 까 단순히 출교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대에서는 음주문화나 성문화 등을 바꿔야 한다는 것, 연대에서 채플을 받는 것처럼 수업을 받아야 한다던가 각 단과대에서 회칙을 바꾸다던가 실질적인 대책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지인 : 다만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문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연히 음주문화를 고민하고 나온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해하면 술을 마시면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생각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의 본능이 나

타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는 술을 마시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인식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 없이 음주문화를 성폭력의 원인으로 꼽게 되면, 성폭력은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본능으로 생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욕이 본능이라면, 왜 이것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폭력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무의식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린 : 법짱, 지인 씨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지인 씨가 말씀하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과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술자리 문화도 성인식과 함께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저희 조형학부에서도 교류반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 후배나 선배들이 원치 않은 스킨십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술자리 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대학가에서 추행문제가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자 : 혹시 방청객 분들께서 패널 분께 질문이나 추가적으로 말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1 : 남기훈 씨에게 질문드립니다. 성감수성이란 걸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기훈 : 제가 썼던 성감수성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얻었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썼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성 문제에 대한 의식이 낮다는 측면에서 성감수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방청객2 : 반성폭력연대회의에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공대소속입니다. 설문지를 받아보고 연대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공대에 여성이 적고 여성주의라는 것이 전혀 이야기 되지 못하고 있고, 오늘 패널에서도 공대 대표자 분들이 없었습니다. 반성폭력연대회의 자체가 공대나 여성주의 이야기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다던가 그쪽 사람들에게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유지인 : 전체적으로 제안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앞으로 공대 쪽에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 습니다.

방청객3 : 반성폭력연대회의에서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설문작업을 도와주고 있는 제열입 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단과대마다 따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아직 정리 중이고 차후에 소책자 형태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방청객4 : 법쟁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학생위원회 에서 활동하는 진주입니다. 저도 여위 활동을 하면서 이번 사건 때문에 많은 기자들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잘려나가고 “강력하게 처벌해 야 합니다” 이런 야한 부분만 편집해서 보도하고, 저의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느낌을 만형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진지하게 성폭력문제로서 이야기되기보다는 고려대고, 의대고, 6년 간 알던 사이였다는 것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던 부분이 일정정도 있었습니다. 그 것이 진지하게 뭔가 해보자라는 반성을 낳는다고 보다는 가십거리처럼 이야기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양면 의 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픈 현실인데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해결된 측면이 있습 니다. 성대에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분이 있는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보도 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여론을 타지 못했고, 법쪽인 문 제로 갔는데 지치셔서 결국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나는 이번 고려대 사건이 부러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을 하자면, 제 친구도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법정에서 물어보는 수치스러운 질문들이 건디기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왜 말씀 드리나하면은, 왜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려웠던 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서 좋은 거야 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감수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새로운 움직 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개개인간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 맞지만 이러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속적 으로, 경향성을 갖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한다면, 처리는 개개인 사이에서 되지만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폭넓게 바뀌나가기 위해서는 고려대 성폭력 사건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전환해서 이야기해보고 고려대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 니다.

사회자 :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논의들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움직임이 있었고, 이 문제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원인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문대 측에서 패넬로 온다고 하셨지만 결국 불참하셨고 발제문을 보내주셨는데, 다함께 기간지 <레프트21>에 실은 발제문입니다. 이 발제문과 다른 패넬 분들의 발제문 3번 문항을 일단 읽고 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반성폭력연대회의를 학생행진으로 간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대회의의 경우에는 학생행진을 포함하여, 더 많은 개인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간주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열 : 흐름을 돌려서 죄송한데 잠깐 성폭력 관련한 통계를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 대구모로 행해졌던 조사에 따르면, 경미한 정도의 성폭력은 80%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80%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신체적 성폭력을 당할 확률은 20%라고 합니다.

3.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① < 문과대학 학생회장 발제문 >

고려대 성추행 가해자 출교 운동에 대한 학생행진의 평가 반박 - 출교 요구는 필요했다

김지윤·김영익 (다함께 고려대 모임)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지 5개월이 흘렀다.

많은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매장되거나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일로 끝나곤 했지만, 이번에는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운동이 고려대 안팎에서 벌어져 다행히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이 출교 요구 서명에 동참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고려대 당국에 가해자 봐주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런 항의 행동 덕분에 가해자 3인이 출교되고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가해자들을 비호하려는 움직임에 맞선 항의는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학생행진(이하 행진)은 이런 출교 요구 운동의 의의와 성과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운동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고려대학생행진과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는 출교 요구 운동이 벌어지는 중에 여러 차례 대자보를 통해 출교 요구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 대자보들이 모두 행진 명의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세 단체 모두 행진이나 그 활동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고 행진이 이 대자보들을 모두 비판 없이 자료로 첨부하고 있으므로 대자보 내용을 행진의 주장으로 간주하고 다룰 것이다.) 가해자들이 출교된 뒤에도 행진은 뉴스레터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22호를 통해 출교 요구 운동을 비판했다('고려대 성폭력 사건에 부처: 또 다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페미니즘 운동 그 자체가 필요하다!'). 이 글은 최근 발행된 <전국학생행진 팸플렛 7호>에도 실렸다.

행진은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만 특수하게 봐선 안 되고, "우리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행진은 이번 출교 요구 운동이 "[성폭력을] 소수 파렴치한들의 문제"로만 여겨 "공동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퇴학, 출교 등 처벌문제는 우리의 반성을 대신할 수 없"고, "가해자들의 기록을 공동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편하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어쩌면 무서운 일"이라고도 한다.

행진은 출교 요구가 "처벌주의"로 경도된 것이고, "명문 사학 고려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범죄자들을 퇴출"시키려는 "정화주의"일 뿐인 양 취급한다. 또, 출교 요구가 학교의 징계권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의 문제?

행진은 출교 요구가 '우리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이런 태도는 행진의 의도와는 달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행진이 '우리 모두의 문제' 운운하며 고려대 성추행 가해자 출교의 필요성을 흐리는 것은 남성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여성차별적 태도들이 모두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과 관련 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행진이 “성폭력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사례로 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외모, 육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평가”하는 것,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것”,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서 일어나는 일들” 등 ...

위의 사례들은 분명 여성차별적인 언행의 사례다. 그리고 좌파 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여성차별적 언행이 스스럼없이 용인되는 분위기에 도전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차별적 관념에서 비롯한 모든 언행들이 전부 성폭력은 아니다. 성폭력은 여러 여성차별적 행동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강압적으로 하는 성적 행위를 뜻한다.

여성차별이 체계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차별적 관념에서 자유롭지 않고 여성차별적 언행을 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단지 남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여성차별적 관습을 딸에게 강요하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가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의 의사를 거슬러 성적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남성은 전체 남성 중 소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폭력이 남성의 폭력적 본성이나 제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보수적인 편견에 도전할 수 있다.

성폭력의 개념을 무한정 확장하는 태도는 성폭력과 그렇지 않은 행위들 사이의 차이를 흐려 진정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또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 취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 평범한 남성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여성해방 운동에 동참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고려대 성추행 사건에서도 행진은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해 놓고는 ‘우리 모두가 성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성추행 가해자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 사람들 사이의 명백한 차이를 전혀 구별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결국 행진은 여성의 의사를 거슬러 옷을 벗기고 함부로 추행·촬영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고려대 성추행 가해자들의 행동과, 그것에 반대해 출교를 요구한 사람들의 행동을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출교 요구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평소에 여성차별적 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롭

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그들이 반성폭력 운동에 참가한 사실마저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현재는 모순적이고 불충분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차별적 편견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렛대로 여성해방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조직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 처벌 문제

위와 같은 행진의 분석은 성폭력 가해자 처벌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낳았다.

물론, 행진의 주장처럼 성폭력이 단지 정신나간 개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에 대한 왜곡과 소외, 그리고 여성차별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동등한 주체로 여겨지지 않고 성적 대상화되고, 여성의 성은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된다. 대중매체는 여성을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사회 전체가 여성차별적 기반 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늘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어머니, 아내로서 가족에 헌신할 것을 요구받고, 양육의 주된 책임자라는 굴레에 묶여 있다. 여성이 가족 내에서 하는 구실 때문에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고 온갖 여성차별이 합리화된다. 성폭력과 성희롱이 벌어지는 것은 이처럼 사회 전체에서 여성이 열등한 취급을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함께는 여성차별의 뿌리인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성폭력이 구조의 문제라고 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개인들을 징계·처벌하는 것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성폭력의 근원인 여성차별을 낳는 체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가 단결해 체제 자체의 변혁을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라도 성폭력을 저지른 개인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차별적 편견 때문에 여러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는 쉽게 합리화되고 제대로 된 처벌조치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피해자가 손가락질받고 공동체에서 배제되곤 한다. 이런 일을 막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차별적 편견에 도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는 구체적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라고 요구하

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가령, 서울대 신교수 성희룡 사건에서 여성운동은 이것이 단지 ‘여성의 예민한 반응’이 아니라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은 당연히 법원이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직결됐다.

또한, 여성운동은 성폭력 재판에서 판사가 피해자 여성이 술을 먹었거나 밤늦게 돌아다녔거나 ‘야한’ 옷차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감형을 하려는 시도에 반대해 왔다.

물론 성폭력을 낳는 구조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한두 명을 처벌한다고 성폭력이 근절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운동을 통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여성차별적 편견에 도전할 수 있다. 이번 출교 요구 운동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했다.

사실 가해자 처벌에 대한 행진의 입장은 일관되지도 않다. 현재 활동 중인 ‘현대차 하청공장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지원대책위’ 역시 현재 피해자 원직복직과 더불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행진도 이 지원대책위에 가입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운동에서 행진은 ‘우리 모두가 문제’라며 ‘가해자 짚어내기’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출교

물론 이번 고려대 성추행 사건에서 징계 수위가 왜 하필 출교여야 했는가가 논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행진은 출교를 요구한 사람들이 마치 “처벌주의에 경도”된 것처럼 묘사하지만, 우리가 출교를 요구한 이유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무조건 선호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출교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점은 이번 사건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다.

가해자가 끔찍한 성추행을 저질러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설문조사를 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해 자신을 변호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학교로 복귀하고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가해자를 출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피해자 자신이 요구한 것이기도 했다.

만약 징계 수준이 퇴학에 그쳤다면 빠르면 한 학기만에 복학할 수도 있었고, 의대의 특성상

그 이후라도 언제든 병원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었다.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방법이 었다.

행진은 “피해자는 수치스러운 기억과 배신감과 상처를 안은 채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출교 요구 운동이 바로 이를 위한 운동이었다!

행진은 2006년 고려대 당국에 의해 출교돼 오랫동안 투쟁해 왔던 다함께 회원들이 이번에는 출교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모순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출교 요구는 학교의 징계권을 강화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태를 추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혀 모순될 이유가 없다. 출교의 구체적인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2006년 출교는 학생운동 탄압을 위한 조치였지만, 이번 출교 요구는 성추행 가해자들을 비 호하려는 학교 당국에 맞서 터져 나온 요구였다. 이렇게 등 떠밀려 내린 징계 때문에 학교의 징계권이 강화된다는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행진은 “처벌의 주체가 학교인 한, 출교를 포함한 어떤 징계든 ... 가부장적인 의미가 매우 강력할 따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이 그래왔듯이, 설사 가해 자를 처벌하는 주체가 국가나 기업주나 학교당국일지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성차별적 편견 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학교당국은 가해자를 비호하려 했고, 운동의 압력 때문에 마지 못해 출교를 내린 것이므로 이번 출교 조치가 가부장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

사실, 처벌의 주체 문제에서도 행진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학교가 ‘가부 장적’ 주체이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에게 ‘성폭력 가해자를 교화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진은 계속해서 ‘공동체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바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출교)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었다. 만약 이

요구를 망설이다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가해자가 의기양양하게 학교로 복귀할 길을 열어줬을 것이고,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학교를 그만뒀어야 했을 것이다.

학교의 명예?

행진이 출교 요구 운동을 폄하하는 또다른 근거는 많은 학생들이 출교 서명에 동참한 동기가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교 요구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앞세운 적이 없다. 여성차별과 성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설사 일부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위해 출교 요구에 동의했다고 한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에서 ‘명예’ 논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직의 명예’를 내세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다. 가령, 2004년 밀양에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되레 “밀양 물을 흐렸다”며 비난했고, 2008년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에서도 해당 노조가 조직의 명예를 내세우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해결을 지연시켰다. 이런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에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맥락에서 ‘명예’를 떠올렸다. 동료 여학생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 학생과, 그들을 비호하는 학교당국이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긴 것이다. 따라서 ‘명예’라는 말만 보고 출교 요구 운동을 꼬투리잡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태도다.

행진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 고유의 페미니즘 관점에 입각하지 않은 운동은 진정한 반성폭력 운동이 아니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결국 행진은 출교 요구 운동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참가하지 않다가, 그 운동의 성과로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자 “그렇게 속이 시원하지는 않다는 느낌”, “허무함” 이라는 말을 하며 운동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서야 뒤늦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물론, 행진의 주장처럼 이번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해서 모든 성폭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함께는 앞으로도 이번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여성차별에 맞서 토론·논쟁하고

투쟁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여성차별의 토대가 되는 체제 변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제가 이번 출교 요구 운동과 대립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행진이 이번 사건에서 취한 태도에서 벗어나 향후 여성운동에서 함께 행동할 기회가 늘어나길 바란다.

② <여학생위원회 발제문>

먼저, 가해학생들에 대한 ‘출교’요구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출교 조치가 피해학우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이러한 출교 요구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습니다. 학우들이 출교를 지지했던 맥락은 다양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해학생들을 (우리가 속한)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출교 결정이 내려진 직후, 트위터나 고파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드디어 학교가 제정신을 차린 것 같군요”, “이제 좀 얼굴 들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와 같은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출교 요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던 세력들은 이보다는 피해학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출교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들이 많이 있고, 출교를 한다고 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완벽한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출교는 입학을 했던 기록마저도 전부 삭제를 해버리는 공동체에서의 완벽한 배제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을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출교조치 이후로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저지른 2차 가해들과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환기하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낮거나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처벌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일정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출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지점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

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출교’로만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상대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우를 격리 조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들을 요구하는 것, 가해학생들의 공개적인 사과 자보를 받아내는 것, 2차 가해를 용인했던 모 교수에게 공개 사과를 받아내는 것, 이를 계기로 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것 등 다른 방식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출교’요구에 밀려 이러한 논점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학교가 출교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패가 결정되는 구도로 몰고 간 것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교를 요구하는 흐름이 우리 내부의 반성과 더불어 자정 노력 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배 씨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교 결정을 유보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을 법적인 문제로만 국한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성폭력에 관해 정의하는 방식이나 죄를 부여하는 방식이 여성의 경험과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평소에 나머지 세 학생들과 서로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혐의를 부인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특정한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를 행위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기준이란, 성기삽입 여부로 강간이나 추행이나를 구분하듯이 지극히 편향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학우가 느꼈을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폭력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학내에서 진행된 반성폭력운동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가장 먼저 학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사건에만 국한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내에서 유의미한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집중하여 학내에서 가장 먼저 흐름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학동안 피해학생 대리인과의 면담, 학생상벌위원회를 거냥한 자보 선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개강 후 가해학생들에 대한 출교요구 운동이 학교 안팎에서 활발해지자, 출교 처벌의 위험성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반성폭력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선포를 하고 피해자 지지엽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학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꾸준히 문제제기하고 활동했던 입장으로써, 앞으로도 후속사업들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예정이니 추후의 활동에 따라 평가가 덧붙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③ <연대회의 발제문>

(1) 출교처분 촉구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짚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출교라는 징계 자체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출교만을 요구한 행동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출교가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학교에서 추방, 그리고 재입학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지만, 좀 더 심오합니다. 출교는 아예 대학에 재학했었다는 사실 자체, 즉 존재의 흔적을 말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것이 과연 교육기관의 징계인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어떤 공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해자를 공동체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노력과, 가해자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교는 그냥 공동체에서 추방입니다. 마치 얼룩을 지우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의 논의의 가능성, 이후 전망을 닫아버리는 조치죠. 이를 통해 대학은 면죄부를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악용을 통해 귀찮은 것을 떨어내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교라는 징계를 요구한 것은 한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학우들이 출교를 요구했던 것은 출교의 이런 점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는 매우 공감하며, 오히려 출교로는 가해자 격리가 불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를 찾아간 일을 들 수 있겠네요. 그렇기에 출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 의미를 담은 징계 또는 대응과 함께 충분한 격리, 그리고 재교육을 요구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하나는 출교만을 요구함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곧 사건의 해결로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처벌은 사건의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피해자의 공동체 복귀, 가해자 재교육, 성폭력 자체에 대한 근절 노력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다른 과제들이 묻혀 버렸고, 실제로 출교 발표 이후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사그라졌습니다. 아직도 피해자 책임론과 같은 생각은 남아있고, 여전히 많은 곳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기에 한창 관심이 폭발적이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과제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다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을 받아 안아 지금쯤에는 개별 사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2) 의료법 개정 움직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모두들 인식하고 계실 테지만 굳이 짚고 넘어가자면, 의사에게

만 성 윤리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학생상벌위원회를 비롯한 대학당국 비판 움직임

역시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은 사과문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대학당국을 비판하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대학당국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나, 대학당국만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은 전문성이나 자원 면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말한 구조적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해결의 주체 중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대학 당국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4) 학생사회 비판 움직임

이건 저희 입장 중 위에서 밝힌 입장이겠네요. 다만 비판이라고 하니까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을 하면 공동체에 대한 반성, 책임감 있는 태도 요구, 성폭력에 대한 고찰, 그 결과로서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 특히 모든 남성들을 예비 가해자로 보는 것이나 하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성폭력에 대한 원인을 모른 채 개별사건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위의 남성 중에 누가 성폭력을 저지르지 어떻게 알아요? 은폐된 불안감만 남을 뿐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내면화된 인식(이것은 여성도 마찬가지예요)을 고집어 내어 고민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함께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④ <총학생회 발제문>

출교로 끝이 아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야만 문제는 해결된다.

이번 사건의 해결에 있어 주된 운동의 흐름은 “학교의 징계”, 구체적으로 “출교” 요구였다.

가해자들을 출교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은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분노와 피해자를 이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하기에, 또한 그러한 이들이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뜨겁게 지지 받으며 이 성폭력 문제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출교라는 징계,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해 총학생회는 고민이 있었지만, 당면한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흐름과 행동에 마땅히 힘을 싣고자 출교 요구의 입장을 갖고 이를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끝내 이러한 압력들의 영향으로 학교는 가해자 3인 모두에 대한 출교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해결과 극복은 출교조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들은 벌을 받았고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마주치지 않고 스스로의 학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도, 이 사건이 남긴 상흔들과 이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지도 않는다.

당연하게도 근본적 성폭력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장과 더불어서 충격적 수준에 이른 공동체의 재건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더 많은 사람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은 6년간 한 학과에서 동고동락한 친구들 3명이 남학생이 집단적으로 성폭력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었던 충격적인 현실 때문이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의지하는 공동체, 나눔과 연대가 아닌 경쟁과 고립, 개인주의의 만연 속에 균열되고 껍데기만 남은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가능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시 가해자들을 추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피해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느끼고 치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폭력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적 노력이 수반될 때 궁극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⑤ <법대 발제문>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크게 실망했다.

사회자 : 일단 학외움직임, 학내움직임이 있고, 학내 움직임 가운데 세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출교요구운동, 둘째로 신중론, 세 번째로 학생사회 내에서 반성폭력운동을 장기적으로 벌여나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발언 하실 패널 분 말씀해 주세요.

남기훈 : 사건 이후 가해자에 대한 조속한 출교조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많았는데, 피해자를 위해서 소신 있는 활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과대에서 말한 것

처럼 출교요구 때문에 출교가 되었다는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영향은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출교가 늦어지는 것을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피해자가 그 동안 받았을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학칙 상 양성평등센터는 조사 중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없고 압력도 가할 수 없었습니다. 학장/교수님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고, 양성평등센터를 찾아가 징계 요구를 권해달라고 요청했다. 2개월 후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징계가 내려지기까지는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2006년 당시 출교가 무효화된 이유는 절차상의 하자과 학교가 학생에 대한 교화가능성을 배제하고 내린 출교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내릴 것이면 확실한 절차를 거쳐 반복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유지인 : 학교의 대응에서 안타까웠던 지점은 피해자를 고려하는 처리과정이 부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게재된 사과문을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나 위로의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악의적인 설문조사가 돌기도 했었는데, 학교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수님들은 알고 계셨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은, 학교가 정작 필요한 대응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교에 대해서는 1)출교라는 징계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출교’는 원래 출교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요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교는 학적을 말소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방법인데,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도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떨쳐버리겠다는 뉘앙스가 더욱 컸습니다. 악용될 소지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출교는 완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생사회의 주인이라면, 출교라는 징계를 바꿔나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2)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출교가 되면 모든 사건이 해결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9월 5일 출교 발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급히 식었습니다. 여론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부터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 지금은 더 발전된 반성폭력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학우들이 열심히 참여했던 운동이지만, 한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린 : 가해자들이 출교당한 것은 학교에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고파스나 네이트 뉴스 등을 보면 ‘쪽팔리니까 출교시키자’,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빨리 출교시키자’는 등의 여론이 거셌습니다. 문과대학생회의 발제를 보고 드는 생각은, 막상 출교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문과대학생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입니다. 여론이 식고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조치였을 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과대학생회는 출교요구 서명을 주도해 놓고 정작 출교 이후에는 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남기훈 : 반성폭력연대회의에 질문이 있고, 방안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표명이나 외부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립니다. 처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징계위원회 교수 구성은 아무도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징계수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퇴학이라는 말이 언론에 떠돌았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지만, 왜 갑자기 퇴학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인 설문조사의 경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우리도 기사를 통해서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설문조사는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가해자들 중 1인이 무죄라는 것, 피해자의 상황도 있지만 가해자도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호소하며 지인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학우들이 자신의 친구가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서명에 응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전에 흐름을 알아서 차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피해자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 내 성폭력 사건은 현재 원칙적으로 양성평등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만큼은 학칙의 개정을 통해 단과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신속한 대처를 취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만 대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성평등센터가 독립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재고해 봐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영 : 총학생회에서도 이 사건의 대응에 대해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된 것은 출교운동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고려대의 명예를 복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교 요구의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고려대에서 이미 출교로 인해 홍역을 앓았었고, 출교 자체가 교육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출교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다고 출교 반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학대회에서 대표자들의 의견을 묻는 식으로 운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사건의 근본적 해결은 출교조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학교에 돌아올 수 없고, 피해자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사건의 상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공동체의 붕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을 벌 주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 또한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릴 : 한 가지 덧붙이려고 합니다. 발제문에 나와있는 공동체를 따뜻하게 복원하자는 슬로건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과/반 등의 공동체가 활발했을 때에는 과연 성폭력이 없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성폭력 사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만으로 성폭력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영 : 공동체에 방점을 찍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결의 방식이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청객5 : 작은 단위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움직임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은 출교라는 징계였습니다. 당시는 출교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제도만능주의의 일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도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출교로 끝내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출교에 내포된 의미를 찾아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기훈 : 출교 이후 분위기는 식어버렸지만, 제가 오늘 토론에 참여한 이유가 4)에 있습니다. 학장님이 사퇴하셨고 의무부총장(의료원 총장)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기로 의료원이 뒤처지고 고려대학교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제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도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린 : 나도 답이 있다기보다는 답을 얻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사건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단과대의 여학우들도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출교되고 피해자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공평하게 해결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 더 발전적일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방청객6 : 4번 문제를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라고만 하면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 전체 패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출교결정 이후 반성폭력 인식의 향상을 공동체 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 각 단체에서 실현가능한 실천/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특히 총학생회에 늦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는 데요. 질문자님에게 부총학생회장 유지영 씨가 답변만 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평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의 주된 흐름은 출교였고, 총학생회는 여기에 입장 표명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출교라는 징계가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학교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 보호의 목소리에 출교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빨리 내지 못했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기훈 : 총학생회에서 출교의 옳고 그름에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부터 출교요구가 있었는데,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교수님께 전달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던 1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출교라는 징계가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출교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들의 경우는 의사라는 특수성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마취/정신과 치료 등을 생각해 보면 의사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될 사람들에게 대해 교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했고, 출교가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민우 : 의과대학생회에 동의합니다. 의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처벌은 1)죄값을 치른다는 의무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본질적이고, 2)예방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날 있었던 사건이 죄값을 제대로 치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입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해서 마주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형법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젓값을 따져서 형을 치르는데, 출교가 젓값에 맞는 처벌이었는지 엄격하게 파악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린 : 총학생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라는 것이 꼭 출교처벌에 대한 입장표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면 반성폭력연대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사건이 고려대 학생사회의 방향성을 논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꼭 출교에 대한 입장에 갇히지 않고 실천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헤라 : 법과대학생회에 질문이 있습니다. 출교 반대 입장 중에서도 여러 입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젓값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강하다로 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의아합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가해자를 약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사가 과장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과대학’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방민우 : 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2006년 판례가 밝히고 있듯이 출교 여부는 학교가 판단을 내리기에든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처벌은 형사 처벌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형사처벌은 법원만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도, 학교가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동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법을 공부해본 바,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사회문제라기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를 모두 고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배워서 아니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다른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 알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가해자 쪽의 논리를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입니다. 어떤 메이저신문사에서도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변호사도 사임을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헤라 : 가해자가 불쌍해 보이는 사건은 한국에서는 성폭력 사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확실히 이전과는 대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가해자를 약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린 : 가해자를 약자라고 보지는 않지만, 방민우 씨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강제 추행인데 강간으로 표현을 했다는 식의 관점은 문제가 되지만, 가해자들이 정말 하지 않은 일도 확대되고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성숙한 대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유지인 : 가해자의 경력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지나친 젓값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기 힘든데,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할 정도로 피해자는 가슴 속에 쌓인 것이 많았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와 너무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각이라는 문제점에서 봤을 때, 법은 여성의 시각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그리고 성폭력의 정도에 대해 행위 중심으로 법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별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자의 언어로 사건을 재해석하는 노력들이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여성의 시각이 미치지 않는 법에 기대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잘못을 그대로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민우 : 여성이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번 1심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수위의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사기관도, 양성평등센터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조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누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법과 대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존재했던 적이 있고, 추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사건을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열 :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를 약자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올라가면 피고소인에게 죄가 있음을 증명하는 장이 되는데, 그 당시 미디어의 행태/대중적인 감정을 보면 일방적인 인민재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이 약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체 성폭력 사건 중 기소되어 징역형을 사는 것

은 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2심, 3심 올라가면 다 합의가 되거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결과가 검찰에서 구형한 것 보다 더 많이 나왔던 이유는 대중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아직도 항거유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여성들에게 성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협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항을 할 경우 성폭력만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 체계 상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여성이고, 약자도 여성이 됩니다. 이점은 확실합니다.

사회자 :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발제해주십시오.

4. 이후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가?

남기훈 : 1)피해자가 국가고시 준비상태라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 이후 이전과 다른없는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대책위원회에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모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2)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칙개정과 더불어 학생회 체계를 바꾸려 합니다. 예전 문과대/정경대에 여성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행사들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올바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그리고 인식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새터는 다른 단대와 다르게 1학년에서 5~6학년까지 가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인식과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자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차원에서는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성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될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교육입니다. 의대는 동아리가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빈번한 술자리에서 생겨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끼리는 술집이 아니라 카페에서 회의를 해보는 방식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방민우 :

<발제문>

없다.

법과대학은 신입생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과대학 차원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대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다른 단과대에 비해 성추행의 빈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의 스킨십을 하는 것도 강제추행죄입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삼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야기 하며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간의 경우 간 자가 '간음'의 의미입니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강 자는 강제력을 행사한 것인데, 강제력의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강제력을 높게 보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피해 주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깨를 잡는다거나 춤을 추는데 끌어안는 등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죄입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판례를 보면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으로 판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추행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소책자로 나누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영 :

<발제문>

총학생회가 임기 말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학생회 차원의 이에 대한 추후 사업 구상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학내외의 성폭력 문제의 해결, 바닥으로 치달은 고려대의 따뜻한 공동체 복원을 위해 총학생회는 노력할 것이다.

여학생위원회에서 낸 발제에서 봤는데, 새터 시기 여성주체 회의나 교양주체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 학생사회에서 크게 공론화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새터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성평등/성문화 교육이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인 :

<발제문>

우선 대자보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정리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선거 기간에는 단과대/총학생회 모든 선본들에게 공동 공약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학교에 대한 요구안도 기획 중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재교육, 현재 의무가 아닌 교원에 대한 반성폭력교육 의무화 등입니다.

홍해린 씨가 말한 내용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다고 했는데, 일회성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논의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속한 과/반의 경우는 여성주의 소모임이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련 :

<발제문>

저희 여학생위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대회의에 참가할 것입니다. 또한, 2학기 사업으로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더욱 알려내는 사업들을 구상중입니다. 또한, 다른 학교들에 있는 반성폭력 자치규약 자료 수집과 이를 정비에서 각 단위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특히, 겨울방학에는 ‘새내기 새로배움터’ 맞이 각 단위 여성주체들과 함께 반성폭력 자치규약 바로알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대학 신입생 오티 때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대학 문화를 접하는 새터라는 곳에서부터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 스스로 고민하고 바뀌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해 주어야 합니다. 각 단위 여성주체들을 대상으로 새터 가기 전에 교육 및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자신의 단위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도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 주체가 부재한 곳에는 영상이나 대체 사업 등으로 여학생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불편하다고, 할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외면한다면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홍해린 : 임기 마지막 주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규모가 작아 다음 학생회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있고, 이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꾸려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위원회가 새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새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토론/성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내부에서 한 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민우 씨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1)술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당했을 경우 가벼운 것이라도 강제추행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누가 경찰서에 가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할까요? 주위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권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2)범죄가 아니면 해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만들어낼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방청객7 : 반성폭력연대회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민우 씨에게) 법에서는 성기삽입 여부를 강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여성의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남성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결국은 출교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내부에서의 운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작은 과반에 있었는데, 성폭력 사건의 매뉴얼을 정하고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과대별로 특수성이 있지만, 학교 전체적으로 반성폭력 교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폭력연대회의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열 : 방민우 씨가 답변을 주셔서 저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처벌이 결정되는 사법체계 내에서 여성들이 소외되는 현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법대가 성과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통계를 통해서 법과대학에서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출교이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못하고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여러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칙/제도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교 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 왜 출교운동이 출교 이후 사그라들었냐고 물으셨는데,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교운동의 목표가 출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도했던 안 했건 성폭력의 문제를 특수한 주체들의 문제라고 인정하는 현실적인 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어떤 과제를 남길지 생각하는 지금은 지뢰찾기 게임처럼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발 잘못 내딛으면 지뢰가 터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발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은 학생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린 씨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차원에서 토론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학생위원회에서 새터를 준비하면서 ‘문화를 바꾸는’ 새터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학생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자료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으니, 요청하기 바랍니다.

사회자 :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셨고, 학생사회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선거 시기 공약제안을 통해 반성폭력연대회의는 계속해서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는 고려대학교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고자 2011년 6월 22일 결성되고 2011년 9월 3일 승인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특별회의입니다.

kufem2011@gmail.com

2011년 11월 19일